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세계 5위 목표”  
02



Economy

|                    |                           |
|--------------------|---------------------------|
| 코스피                | 코스닥                       |
| 2497.09<br>(-1.72) | 799.24<br>(-19.62)        |
| 금리 (국고채 3년)        | 환율 (원·달러)                 |
| 3.261<br>(-0.007)  | 1334.60<br>(+5.20) (1.31) |

# 삼성 D램 드디어 흑자 실적회복 신호탄 쏘았다

##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실적

매출 67.8조, 영업이익 2.7조  
전년비 각각 3.8%, 34.4% 하락  
반도체·가전·디스플레이 부진  
생성형 AI 따른 D램 사업 흑자

삼성전자가 실적 회복 희망을 확인했다. 지난해 반도체에서만 15조원 규모 적자를 냈지만, D램이 드디어 흑자로 전환하며 올해 실적 정상화 기대도 숨기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2023년 4분기 매출 67조 7800억원에 영업이익 2조8200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 3.81%, 영업이익은 34.40%나 하락한 수치다. 연간 기준으로 매출 258조9400억원에 영업이익6조5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33%, 84.86%나 급락했다.

반도체 사업 부진이 원인이다. DS부문이 4분기에도 매출 21조6900억원에 영업손실 2조1800억원에 그쳤다. 연간으로는 매출 66조5900억원에 영업손실이 14조8800억원에 달했다.

가전과 디스플레이 등 사업도 소폭 하락했다. 연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VD/가전 사업은 1조2500억원, 삼성디스플레이도 5조57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 안팎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스마트폰 사업이 최악을 막았다. MX사업부문 영업이익이 4분기 출

하량 감소에도 2조73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연간으로도 13조100억원, 전년(11조3800억원)보다 20%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다.

하만도 매출 14조3900억원에 영업이익 1조17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 안팎 성장을 이어갔다. 영업이익은 처음을 1조원을 넘겼다.

### ◆반등 본격화

그러나 삼성전자는 4분기부터 회복이 본격화됐다고 올해 실적에 자신감을 숨기지 않았다. IT 업황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세트 사업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D램 사업이 흑자로 전환됐다. PC와 모바일 등 전방 산업 회복과 함께 생성형 AI 서버 수요 증가로 HBM과 DDR5 등 첨단 공정 제품 판매가 대폭 확대됐다는 것.

삼성전자는 특히 생성형 AI에 따른 서버용 D램 비중이 과반을 넘었으며, SSD도 50% 가까이 판매 증가를 보이는 등 메모리 수요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고 수준도 큰폭으로 개선, D램과 낸드 모두 올해 상반기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메모리 부문도 좋았다. 스마트폰 수요 증가와 함께 엑시노스 2400 출고로 매출과 손익이 모두 개선됐고, 파운드리도 연간 최대 주주 실적을 달성하며 성장 가능성을 높였다. 3나노 및 2나



국회 간 중기인들,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한 17개 단체가 참여했다. 참가자들이 ‘산재예방 잘할테니, 사장 처벌 없애달라’ 등을 적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3500여 명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뉴시스

노GAA 기술 개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고성능컴퓨팅을 중심으로 판매 비중과 신규 수주를 늘렸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도 비수기 속 수익성을 높인 데 의미를 뒀다. 신제품 출시 효과가 둔화되면서 전체 판매량은 감소했지만 프리미엄 태블릿과 웨어러블 등으로 견조한 판매를 유지했다. 설계 최적화와 리소스 효율화로 수익성도 두자릿수를 유지하는데 성공했다. 네트워크 역시 해외에서 매출을 늘리는데 성공했다.

### ◆멈춤 없는 투자

삼성전자는 어려운 실적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며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주담대 못 갚아 경영권 흔들 바이오업계 ‘자금난’ 현실화

## 엔케이맥스·진시스템·이오펜로우 최대주주들 주식담보대출 상환 못해 주식매도 이어져… 경영·주가 추락

자금난에 빠진 바이오 기업들의 경영권이 흔들리고 있다. 주식담보대출을 갚지 못한 기업들의 최대주주가 하루 아침에 바뀌거나 사라지는 사례가 잇따르며 기업경영과 주가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 엔케이맥스 주가는 하한가(29.89%)까지 추락, 2135원에 거래를 마쳤다. 경영권 불안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엔케이맥스가 지난 30일 공시한 바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박상우 엔케이맥스 대표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1248만2184주(15.06%)에서 62만8902주(0.76%)로 줄어들었다. 박 대표가 보유한 주식 1072만6418주 가운데 1072만1000주가 지난 24일 장내로 갑자기 쏟아진 것이다. 주가는 당일 돌연 하한가로 급락했다.

이유는 이랬다. 박 대표와 그의 친인척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에서 돈을 빌렸는데 주가가 추락하면서 최소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

지 못하자 기관투자자들이 담보로 갖고 있던 주식을 반대매매로 장내에 팔아버린 것이다. 지난 11월까지 1만3000원대를 유지하던 엔케이맥스 주가는 연말부터 추락을 거듭하며 반대매매 직전인 지난 23일 5000원대까지 내려앉은 바 있다. 이번 반대매매로 인해 박 대표 명의의 남은 주식은 5418만주, 지분율은 0.01%로 사실상 거의 사라졌다.

회사측은 “최대주주가 부채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의 빠른 해결과 주가 회복을 위해 최대한 조속히 지배구조를 안정시킬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자금난에 경영권이 흔들리는 사례는 지속되고 있다. 최대주주들이 주식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주가 하락으로 대출 연장도 어려운 이중고를 겪고 있는 탓이다.

진시스템은 지난 17일 서유진 대표가 신한투자증권과 맺은 주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보유지분 40만주를 블록딜을 통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8835원으로 총 금액은 33억원 규모다. 주식 매도로 서 대표의 지분율은 기존 21.02%에서 15.22%로 낮아졌다. 대출을 받은 지난해 9월 3만2000원까지 올랐던 진시스템 주가는 현재 7800원대까지 추락한 상태다.

이오펜로우 최대주주인 김재진 대표 역시 지난해 12월 한국투자증권에서 받은 주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대출 만기가 지난해 10월 31일까지였는데 이를 연장하지 못한 탓이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엔케이맥스 본사.

## 당국,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인가방식 발표

# 대구銀, 시중은행 파란불… “직원 사고 영향 없다”

신규인가 아닌 ‘인가내용 변경’으로  
법률관계 승계 여부 불확실성 해소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임직원 위법행위는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가절차도 원하는 경우에만 예비인가를 거치도록 해 바로 본인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르면 1분기(1~3월)내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는 31일 정례회의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 방식과 절차’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법령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실제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사례도 없어 인가 방식과 절차를 논의하게 됐다”며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은 일부 인가요건과 영업구역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전환 방식과 절차를 명확히 해 법적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 ◆시중은행 전환, ‘신규’ 대신 ‘변경’

우선 금융위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 시 인가방식을 ‘신규인가’가 아닌 ‘인가내용 변경’으로 한다.

신규인가를 택할 경우 대구은행은 폐업처리를 해야 하고, 이 경우 기존 대

구은행이 맺은 법률관계가 신규 시중은행으로 승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법률관계의 승계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단, 심사요건은 신규인가만큼 강도를 높여 심사한다.

현재 지방은행의 경우 소재지 지역으로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경우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만큼 이에 맞춰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자격요건 등 경영관련 심사요건이 바뀌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 원희룡 ‘이재명 지역구’ 공천신청… “李의 정치는 권력위한 도구” /사진 뉴시스  
▲ 통일차관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서 유엔사 역할 중요”

▲ 장예찬 “이준석당은 캡사이신”… 개혁신당 “張, 정치 콜레스테롤”  
▲ 3600t급 장보고 3번함 건조 착수… 탐지·표적처리 성능 개선



▲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월15일 실시 /사진 뉴시스  
▲ “설 연휴 응급환자 신속 이송”… 전국 소방헬기 31대 배치



# “FTA 네트워크 확대… 수출 7000억 달러, 세계 5위 목표”

산업부, 2024 업무계획 발표  
외국인투자유치 목표 350억 달러  
작년보다 수출 8.5% 성장 추산

10대 전략시장, 30대 품목 선정  
수출 다변화·역량 확대 등 추진  
250조 규모 무역보험 제공키로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는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달러, 외국인투자유치는 350억달러로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전날(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급망·디지털·탄소중립·인구구조 등 4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10대 전략시장, 30대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 대비 90%까지 확대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서울 삼성R&D 캠퍼스에서 열린 ‘산업-에너지 R&D 혁신 라운드 테이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안 장관은 역대 최대 수출 목표 근거에 대해 “한국은행은 올해 수출을 약 6900억 달러 정도 규모로 추산했다”며 “저희도 작년에 비해 약 8.5%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불안정한 문제들이 좀 있다”며 “우리 경제가 지금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

한 기동 중에 하나가 수출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해 좀 과감한 목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출 70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면 전 세계에서 한 5~6위 정도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총력전을 기울여 보겠다”고 강조했다.

대 중국 수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중

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이고 우리 산업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며 “대중국수지가마이너스이긴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개선되고 있고 적자폭도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국 무역이 우리 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분야별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반도체는 지금 업사이클로 들어가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자동차는 작년보다 약진하고 있고, 올해는 고부가가치 조선 분야 수주가 많이 늘고 있다”면서 “무선통신, 바이오헬스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올해는 우리가 수출을 키워나가면서 좀 고르게 키우려고 한다”며 “반도체에 너무 집중했을 때 반도체가 죽으면 우리 수출이 꺼지고 경제가 휘청이는데, 이런것들을 좀 다변화시키고 전반적인 수출 역량 자체를 좀 키워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250조원 규모의 역대 최고 수준 무역보험

을 제공하고, 수출 바우처를 2배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국내 시험 인증비용을 최대 20% 인하를 올해까지 연장한다. 또 첨단산업 중심으로 총 150조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정책금융 14조 7000억원을 공급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킬러규제 철폐 등의 패키지를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체 검증센터 구축,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역량을 속도감있게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미래차, 방산, 로봇 등의 추가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 산업의 구조적 당면 과제인 인력 부족, 생산성 저하 해결을 위해 제조 시스템 전반을 AI·디지털로 혁신하는 ‘AI 자율 제조’를 추진한다. 올 상반기 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AI 자율 제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지역별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작년 국세수입 344.1조 ‘56.4조 세수펄크’

기재부,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  
예산대비 법인세 23%, 소득세 12% ↓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56조 4000억 원 줄어듦에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2023년도 예산에 비해 각각 23.4%, 12.2%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누계 국세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전년(395조 9000억 원)에 비해 51조 9000억 원(-13.1%) 감소했다. 지난해 예산인 400조 5000억 원에 비해서는 56조 4000억 원(-14.1%) 줄면서 역대 최대의 세수 부족이 나타났다. 국세수입은 최근 2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세목별로, 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모두 전년대비 쪼그라들었다.

소득세(115조 8000억 원)가 전년대비 12조 9000억 원(-10.0%) 줄었다. 토지와 주택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17조

6000억 원)가 14조 7000억 원 덜 걷힌 영향이다. 종합소득세(21조 4000억 원)도 2조 5000억 원 줄었다. 근로소득세는 1조 7000억 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예산 대비로 16조 원(-12.2%) 감소했다. 특히 양도소득세(-12조 2000억 원)가 감소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법인세(80조 4000억 원)는 기업실적 부진으로 1년 전보다 23조 2000억 원(-22.4%) 줄었다. 예산 기준으로 24조 6000억 원(-23.4%) 감소했다.

부가가치세(73조 8000억 원)는 수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7조 9000억 원(-9.6%) 덜 걷혔다. 예산보다는 9조 4000억 원(-11.3%) 줄었다. 유류세 인하 정책으로 교통세(10조 8000억 원)도 3000억 원(-2.5%) 줄었다. 수입 감소 등으로 관세(7조 3000억 원)는 3조 원(-29.4%) 감소했다. 예산보다 3조 4000억 원(-32.0%) 덜 들어왔다.

종합부동산세(4조 6000억 원)는 전년 대비 2조 2000억 원(-32.4%), 예산보다

1조 1000억 원(-19.5%) 감소했다. 증권거래세(6조 1000억 원)는 전년보다 2000억 원(-3.5%) 감소한 반면, 예산보다는 1조 1000억 원(22.2%) 늘었다. 전체 세목 중 교육세(5조 2000억 원)만 전년보다 5000억 원(10.9%) 늘어났다.

기재부는 세정 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2022년보다 41조 7000억 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저 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 4000억 원, 법인세 1조 6000억 원, 부가가치세 3조 4000억 원, 기타 2조 8000억 원 등 총 10조 2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과 관련해 “작년보다 23조 원 증가한 367조 3000억 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월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1월 세수는 부가가치세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해 4분기 속보치를 보면 민간 소비가 1%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 만큼 어느 정도 늘어났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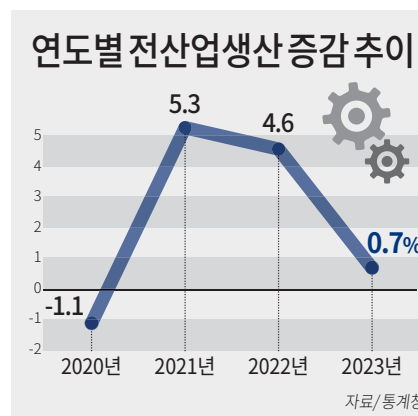
## 작년 제조업생산 25년만에 최대폭 감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반도체 등 수출부진, 제조업 타격  
전산업생산은 전년비 0.7% 증가

지난해 산업 생산이 2022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반도체 등의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생산이 지난 1998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소비와 투자는 동반 감소했는데 특히 소비가 20년 사이 최대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全)산업 생산은 전년대비 0.7% 늘었다. 전산업 생산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020년(-1.1%) 첫 감소를 기록한 뒤 2021년(5.3%), 2022년(4.6%), 2023년(0.7%) 등 3년째 증가를 거듭했다. 그러나 작년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생산이 크게 줄어 전산업 증가 폭이 1% 미만으로 둔화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년대비 3.8%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6.4%) 이후 최근 25년 사이 최대 감소 폭이다. 자동차에서 늘었으나 전자부품과 반도체 등에서 크게 줄어 들었다. 제조업은 전년 대비 3.9% 감소했는데, 이 또한 1998년(-6.5%) 이후 25년 사이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대구은행, 이르면 1분기 ‘시중은행’ 전환

▶▶ 1면 ‘대구銀 시중은행’서 계속

강 과장은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것은 인가내용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것”이라며 “경영관련 세부 심사요건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심사요건이 타당하지 점검하기 위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임직원 위법행위, “인가 영향 없어”

아울러 인가절차에서 예비인가는 생략 가능하다.

은행업을 인가하는 경우 통상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거치는데, 예비인가

는 본인가 전 대주주, 자본금, 인적·물적 설비 등 인가요건을 맞추기 위한 기간으로 해석된다. 지방은행의 경우 이미 은행업을 영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가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대구은행도 최소 자본금(1000억원), 지배 구조(산업자본 보유 한도 4%), 대주주 적격성 등의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임직원의 위법행위는 대주주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인가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현재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인가신

청 이후 심사중단사유를 ‘주주’ 관련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구은행의 임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을 활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바 있다. 임직원의 위법행위는 주주의 형사소송과 다른 문제로, 제재확정 전이라도 인가심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강 과장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 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을 신청할 수 있다”며 “단,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해 적정성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1면 ‘주담대 못 갚아’서 계속

김 대표는 보유주식 총 200만주를 장내 매각했고, 지분율은 18.54%에서 9.79%로 떨어졌다.

파매프린은 지난해 창업주인 유진산 전 대표가 유콘파트너스에 지분을 넘겼지만 직후 반대매매가 발생하면서 유콘파트너스 지분 대부분이 장내 매도되는 수모를 겪었다. 오랜 진통 끝에 지난해 타이어뱅크가 파매프린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인수 금액은 고작 50억원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제약산업 전략연구원 정운택 원장은 “금리 인상과 맞물려 투자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시작된

바이오 기업들의 자금난은 상반기중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하반기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투자 유동성 해소가 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낙관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바이오 업계의 경영권 변화와 인수합병(M&A)에 대한 이슈도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이다.

정 원장은 “신사업에 뛰어들려는 이종산업군의 니즈가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 기업들이 자금난 돌파를 위해 회사를 매각을 하거나 제휴를 하는 일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이종산업의 기업이 신약 개발 생태계나 환경들을 얼마나 이해할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DGB금융 차기회장 이목집중… 전·현직 대구은행장 맞붙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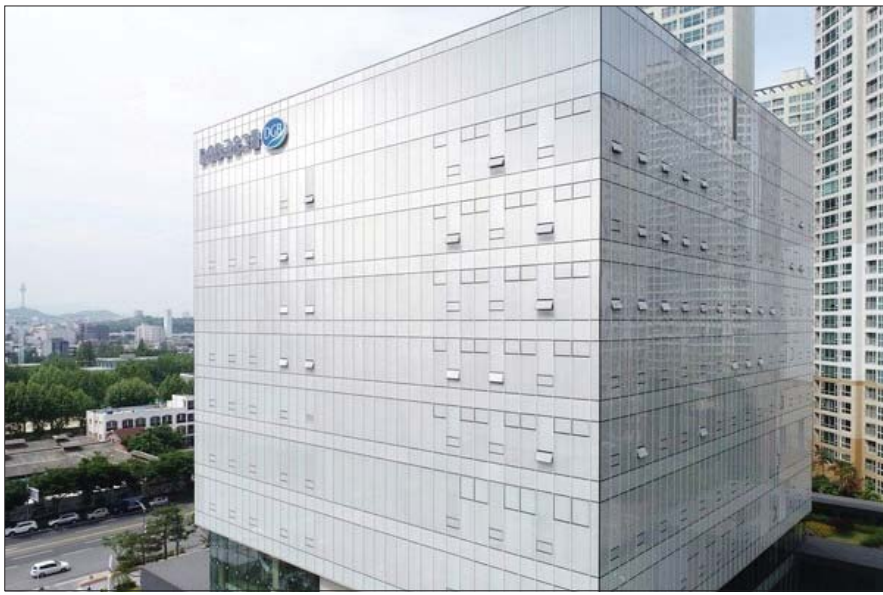
김태오 회장 이달 임기로 용퇴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과제  
황병우 등 내부인사 전망 유력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DGB금융그룹을 이끌 차기 회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의 활동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하마평만 무성한 가운데 DGB금융 내부 후보군이 차기 회장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심사·인가 방안을 의결했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기존 은행업 인가 반납 없이도 심사를 통해 영업 인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은행 제2본점 전경. 대구은행 제2본점에는 DGB금융지주가 위치해 있다. /DGB금융

지방은행은 DGB금융그룹의 대구은행이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대구은행의 1분기 내 시중은행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임기를 끝으로 용퇴를 선언한 김태오 회장의 뒤를 이을 DGB금융의 차기 회장 결정에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GB금융 회추위는 지난 1월 19일

비공개 톨리스트(1차 후보군) 선정을 마쳤고, 2월 중 숏리스트(2차 후보군) 확정과 공개를 위해 후보 평가를 진행 중이다.

DGB금융에 따르면 DGB금융은 톨리스트 후보군을 대상으로 ▲회추위 면접 ▲외부기관 전문가 인터뷰 ▲외부기관 행동면접 평가 및 인적성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숏리스트 후보군을 선정한다.

2차 후보군 선정까지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금융권에서는 내부 후보군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허인 전 KB금융지주 부회장,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유력한 외부 후보군이 후보직을 고사했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과제를 이어가기 위해선 내부 사정에 밝은 DGB금융 내 인사가 유리하다는 관측 때문이다.

내부 후보군으로는 현직 대구은행장으로 CEO 후보군에 포함된 황병우 대구은행장, 임성훈 전 대구은행장, 김경룡 전 DGB금융 회장 직무대행 등 전·현직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DGB금융의 차기 회장 선정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은행지주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통해 외부기관 활용 시 모범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설문지 구성 등 평가체계 점검 ▲개별 인터뷰 등 평가지원 ▲평가 참여 ▲보고서 작성·액션 플랜 마련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외이사로 구성된 회추위의 활동에 공정성을 더하는 방안이다.

현재 DGB금융의 회장 결정 진행과정은 회추위 면접을 제외한 전 과정에 외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금감원, 정치 테마주 특별단속… “불공정거래 행위 엄단”

22대 총선 앞두고 급등락 반복  
“합리적 근거 없어… 위험성 높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가 이미 급등락을 반복하자 감독당국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1일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총선에 앞서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정치테마주의 주가 급등락과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정치테마주는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 이상급등이 발생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테마주로 분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시스

류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총선 테마주는 이미 과열된 상황이다.

주요 정치테마주의 전체 시가총액은

부각되기 시작한 10월 4일 3조8118억원에서 지난 23일 4조2286억원으로 10%가 넘게 뛰었다.

정치테마주 지수는 작년 10월 초 대비 최고 53.80% 급등했다. 일별 주가등

락률은 지난해 10월 4일에서 올해 1월 23일까지 최저 -9.81%에서 최고 10.61%로서 시장지수에 비해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와 함께 정치테마주의 종목별 시가총액은 대부분 1000억원 미만으로 품문 등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 쉬운 중·소형주였다.

정치테마주는 주로 기업의 임원 등이 유력 정치인과 지연·학연 등으로 관련이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원이 정치인과 학교 동문이거나 정치인의 고향이나 선거구에 회사의 본사가 위치하는 식이다.

주요 정치테마주들은 주가는 급등했지만 일반 종목에 비해 실적이 저조했

다. 증시나 언론 등에서 주로 언급되는 40여개 종목 기준으로 작년 3분기 누적 기준 정치테마주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6.5%로 시장지수 일반종목 평균 10.1%를 밑돌았다.

선거철마다 정치테마주의 주가는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했고, 선거일이 다가오면 주가가 하락해 주가 상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때가 많았다. 주가 하락 시점과 변동폭 등은 종목별로 달라 주가 예측도 어렵다.

금감원은 이상 급등하는 정치테마주에 대한 매매분석 및 텔레그램, 주식커뮤니티를 통한 품문 유포 세력과의 연계성 등을 정밀 분석 중이다. 정치테마주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의 정황을 발견할 경우 신속한 증거확보와 조기 대응을 위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울릉도 2024 ULLEUNG-DO SNOW FESTIVAL

나리분지 일원

## 눈축제

1-2월 상시 프로그램  
튜브 눈썰매, 노지 캠핑·차박  
스노우 래프팅, 눈꽃 소원 나무

2월 1-3일 프로그램  
눈사람 만들기 대회, 크로스컨트리 스키  
울릉도 겨울 사진전, 얼음 조각 전시, 자동차 극장,  
먹거리 장터, 플리마켓



# HBM·서버용 SSD 등 수익성 개선… AI기반 신규시장 선점

〈고대역폭메모리〉

》1면 '삼성전자 작년 4분기 실적'서 계속

AI수요 대응 메모리 등 시너지↑  
연내 HBM3E 생산 수익성 확보  
모바일 AI, 글로벌 스탠다드 목표  
'AI 프로세서·타이젠 OF' 본격화

연간 기준으로는 투자금액이 53조 1000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4분기 시설투자만 16조4000억원이다. 반도체에만 14조9000억원,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해 평택사업장 클린룸 확보와 R&D, 첨단 공정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다.

미국 테일러 공장 인프라 투자도 있었다. 디스플레이도 차세대 OLED와 플렉시블 제품에 투자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미래 반도체 시장을 위한 투자 기조도 소개했다. 재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일단 감산 기조는 이어간다는 계획,



삼성전자가 중동 최대 명절인 라마드에 이후 이어지는 '이드 알 피트르(Eid al-Fitr)' 축제 기간을 맞아 지난 21일 세계 최대 쇼핑몰 '도바이물'에 '스마트싱스 팝업스토어'를 오픈했다. 팝업스토어를 찾은 현지 소비자들 이 스마트싱스 기반의 다양한 제품간 연결 경험을 비롯한 삼성전자 최신 제품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대신 제품별로 수준을 조절하고 HBM과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AI 수요에 대응해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지 등과 시너지도 극대화한다.

지속가능한 경영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했다. 에너지 공동협력 이니셔티브와 CF연합에 참여하고 있으며, 갤럭시 S24 시리즈에는 재활용 희토류와 강철

을 적용하는 등 재활용 소재 활용도 적극 확대 중이다.

◆올해 '상저하고'

삼성전자는 올해 실적 회복을 확신하면서도 과도한 기대는 경계하는 모습이다. IT 상황이 점진적으로 회복하겠지만 사업별로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상반기까지는 정상화 수준, 하반기부터 성장이 다시 본격화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는 1분기 비수기 속에서도 D램은 물론 낸드 수요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며, HBM과 서버용 SSD 등 첨단 제품에 적극 대응하며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집중한다고 밝혔다. 연내 12나노급 32Gb DDR5 도입과 HBM3E 적기 생산 등으로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다만 비메모리 부문에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1분기 온 디바이스 AI로 수요가 개선되겠지만 실적 회복세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스마트폰 사업은 AI 스마트폰 선점과 폴더블 스마트폰을 발판 삼아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 갤럭시 S24 시리즈에 더해 폴더블 스마트폰까지 폼팩터에 최적화한 AI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 플래그십 출하량 투자 및 수 성장과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실적과 함께 '모바일 AI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노린다. 네트워크 5G 핵심칩 등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며 해외 사업 확대를 노린다.

TV 사업에서도 비수기에 따른 수요 감소세를 예상하면서 프리미엄 수요 견조를 전망하며 수익성 확보에 주력한다. 차세대 AI 프로세서와 타이젠 OF를 본격화하며 초연결 경험과 서비스 혁신을 통한 'AI 스크린 시대'를 예고했다.

생활 가전 역시 AI 기반 프리미엄 제품 확대와 스마트싱스 기반 연결 경험을 글로벌로 확대하며 신규 시장까지 선점한다는 목표다.

한편 삼성전자는 잉여현금흐름 50%를 환원하고 매년 9조8000억원을 배당한다는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마무리하면서 주당 보통주 361원, 우선주 362원 기말 배당을 결의했다. 아울러 실적 부진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올해부터 3년간 주주환원 정책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 유통업계 '혼설죽' 겨냥 프로모션 경쟁… 전·잡채·도시락 등 '붓물'

〈혼자 설을 보내는 사람들〉

이마트24 갑진년 '값진명절도시락'  
CU '설 궁중식 소불고기 도시락'  
세븐일레븐 '청룡해모동전' 선배

올해 설 대목을 앞두고 국내 유통업계가 '혼설죽'을 겨냥하고 나섰다. 혼설죽은 '혼자 설을 보내는 사람들'을 뜻한다. 특히 편의점 업계 4사가 적극적이다.

31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CU·이마트24·GS25·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업체들이 혼설죽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가성비 뿐만 아니라 간편하면서도 푸짐하게 구성한 게 특징이다.

이마트24는 갑진년 설날을 맞아 '값진명절도시락'을 판매한다.

값진명절도시락(7900원)은 명절 음식인 잡채, 돼지고기구이, 전 3종(해물완자, 오색모듬전, 김치전), 도라지볶음, 고사리볶음, 시금치무침, 볶음김치 등 9가지 반찬으로 푸짐하게 구성됐다.



모델이 GS편의점에서 건강에 관심이 많은 20~30대를 공략하기 위해 출시한 '염소전골 간편식'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GS리테일

특히, 이번 명절도시락은 집에서 바로 만들어 먹는 것과 같은 맛을 구현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밥과 반찬의 맛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CU도 혼자서 다양한 명절 음식을 간편하고 푸짐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설날 궁중식 소불고기 도시락(7200원)'을 출시한다.

CU는 편의점 간편식의 주 소비층인 1인가구의 증가세와 더불어 지속되는 고물가 속 외식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올해 설에도 명절 간편식의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에 맞춰 CU는 이번 설에도 1인 가구 고객들이 쉽고 간편하게

다양한 명절 음식들을 즐기며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설날 궁중식 소불고기 도시락'을 내놓는다.

명절 대표 음식인 소불고기를 메인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정식 도시락으로, 자작한 국물을 밥과 함께 비벼 먹기 좋은 궁중식 소불고기를 담아 달짝지근한 양념과 깊고 진한 육수를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더덕 무침, 고사리나물 등 삼색 나물 반찬까지 제대로 된 한끼를 완성했다.

세븐일레븐은 MZ 혼설죽을 겨냥했다. 주현영 명절 도시락 2종 '청룡해만찬도시락'과 '청룡해모듬전&김치제육'을 출시한다.

'청룡해만찬도시락'은 가정식 소불고기와 너비아니를 메인으로 명절에 많이 먹는 전과 나물로 구성된 도시락이다.

흑미밥에 소불고기, 너비아니와 함께 계란말이, 어묵볶음, 콩나물무침, 시금치무침 등 나물과 오미산적, 부추&김치전, 두부전을 구성해 명절 분위기를

를 느낄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자사 도시락 홍보 모델인 'MZ의 아이콘' 주현영의 단아한 한복차림 이미지를 명절 도시락 패키지에 적용했다.

이온아 세븐일레븐 푸드팀 MD는 "최근 나 홀로 명절을 보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연휴 기간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 고객이 계속 늘고 있다"며 "도시락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명절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GS25는 명절 대표 메뉴인 소불고기, 잡채, 모듬전, 나물, 명태회 등 9찬으로 구성된 '새해복많이바란세용 도시락'을 출시했다. 이 메뉴는 3개월 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완성한 제품으로 가격은 7000원대다.

이밖에 hy도 온라인 몰 '프레딧(Fredit)'에서 혼설죽을 겨냥한 간편식 라인업을 내놨다. 대표 제품은 '잇츠온 국탕류 선물세트', '잇츠온 사골떡만둣국' 세트 등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 은행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188만명에 평균 80만원

소상공인 금리 연4% 초과 환급  
내달 5~8일까지 최대 300만원  
금리 연7% 이상, 대환대출 확대

다음달 5일부터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금리 연 4% 초과분에 한해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연 7% 이상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해 연 5%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기관과 함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중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중세트는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2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로 구성된다.

◆은행, 2월 5~8일 이자환급

우선 은행은 오는 2월 5일부터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대상은 지난해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연 4%를 초과한 이

자를 최초 집행시 모두 환급받는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을 최초 집행시 받은 뒤 올해 납부한 이자분은 분기별로 환급 받을 예정이다.

최초 집행시기는 2월 5일부터 8일까지이며, 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금융위는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가 1조3600억원의 이자를 환급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다.

◆2금융권 5~7% 대출… '신청' 시 이자환급

아울러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

드사,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금리 연 5% 초과분에 한해 최대 1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은 이들 금융기관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이며, 5% 이상 금리에 한해 이자환급이 이뤄진다. 예컨대 연 5.5%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는 0.5%포인트(p)를 일괄 차감한 기준으로 환급이 이뤄지고, 연 7%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는 2%p를 일괄 차감한 기준으로 이자가 환급된다.

단, 이들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선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시 매분기 말일(3월29일, 6월28일, 9월30일, 12월31일)에 이자를 환급해 준다. 금융위는 차주가 모두 이자환급을 신

청할 경우 수혜대상 40만명 중 24만명이 1분기에 1800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1인당 환급규모는 평균 75만원이다.

◆금리 연 7%이상 대출… '대환 프로그램' 이용

이 밖에도 금융위는 연 7% 이상의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지난 19일 기준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2만3000건을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했다. 이로 인해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대출금리는 평균 10.06%에서 5.48%로 약 4.58%p 낮아졌다.

/나유리 기자 yul115@





# 미래를 향해, 미래를 향해

변화무쌍한 바다를 향해하는 것은  
때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도,  
또 속도를 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향해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미래의 미래에도  
행복은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SK도 미래를 향해,  
미래를 향해하겠습니다.





# 이재명 “韓, 4대 위기… 위기극복 DNA로 바로 세울 것”

## 신년 기자회견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위기  
尹 정부 독단·무능으로 무너져

에너지·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부상  
남북 핫라인 복원 등 정책 도입 제안  
총선, 지속가능 韓 만드는 날 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위기 극복 DNA가 있는 민주당이 일을 하기 위해 오는 제22대 총선에서 표를 던져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4대 위기에 처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그는 윤석열 정부는 초보자 감세 정책이 나수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성장은 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와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뒤 윤석열 정부가 먹고사는 문제는 등한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2024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이 대표는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전망을 전하면서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합계출산율

0.7명대 시대의 대한민국 저출생 위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각자도생의 삶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나”라며 “아이를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가 될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전날(30일) 거북권이 행사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됐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안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다.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라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의 해법으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을 선도해 미래 전략으로 삼자고 말했다. 그는 “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한다”면서 “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해 ‘AI(인공지능)·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평화 회복을 위해선 ‘남북 핫라인’을 복원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무력도발은 규탄하면서도 남북이 언제든지 바로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 복원을 통해 대화와 협력의 불씨를 키워내자고 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 위기에 대해선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 정책을 활용해 ‘출생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했다.

그는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면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지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이미 제안한 저출생 공약과 함께 ‘분할복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의 윤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오는 4월 총선이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정치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실현된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자신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한동훈, ‘수원벨트’로 최대 격전지 표심잡기 “민관군경 협력한 국가 총력대비 강화해야”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 가져  
철도 지하화·광역급행열차 등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도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원을 방문해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에는 철도 지하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에서 반도체 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후엔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 담긴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수원이 이번 총선에서 경기지역 최대 격전지가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기 수원은 갑부터 무까지 총 5개 지역구가 있는데, 21대 총선에선 5개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이겼다. 국민의힘에게는 ‘협지’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 이수정 경기대 교수(수원정) 등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이 출사표를 냈다. 당 입장에서 총력을 다해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한 위원장이 직접 ‘수원 벨트’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한 위원장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나노기술원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 등 산업계 관계자들과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고동진 전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 대표이사(구 IM부문)를 영입했고, 이날은 한정민 삼성전자 DS부문 연구원을 영입인재로 발표하는 등 반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첫번째)과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오른쪽 첫번째)이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한국나노기술원 클린룸에서 나노 공정서비스 시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체 산업계뿐 아니라 수원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반도체에 있다. 그 이유는 자랑스런 반도체 산업의 역사가 세계 속에서 역사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미래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며 “늘 얘기하는 건 우리는 소수당이지만 대통령을 보유한 정부여당이다. 우리 정책은 실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한 위원장은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역으로 이동해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지역 격차와 지역 주민 간 삶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구도심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이 중심이 됐다. 현재 경부선 철도가 수원 팔달구와 장안구를 동서로 가로고 있어, 수원에 출마하는 모든 여권 후보들이 ‘교통 인프라’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에는 ▲철도 지하화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

열차 도입 ▲구도심 융복합 정비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지상의 철도가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한다고 보고, 지하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하화 후 남은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는 통합개발을 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할 방침이다.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공약은 광역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광역급행철도를 수도권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주요 권역에 도입하여, 광역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노후화된 구도심을 ‘공원-직장-주거-편의시설’ 15분 생활권이 가능한 공원-도시결합 미래형 도시로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돌봄 클러스터를 기본으로 갖춘 청년·신혼부부 주택, 병품아(병원을 품은 아파트), 실버스테이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syj@

尹,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잇따른 순항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민족 개념을 부정할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올해 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변경했다”며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에 대해 정부 여러 부처와 지자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통합방위체계 구축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통합방위태세 구축에 군, 정부 기관, 지자체가 따로일 수 없다”며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尹 각계 원로·제복 영웅 유가족에 설 선물

대통령실, 나눔실천 대상자에도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제복 영웅·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인사들에게 전통주 명절선물과 대통령의 손글씨 메시지 카드를 전달한다.

대통령실은 특히, 올해는 이웃에 대

한 사랑과 배려의 따뜻한 나눔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사회에 헌신해 온 나눔실천 대상자 등에게도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갑진년 설 선물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차례용 백일주(공주)와 유자청(고흥), 잣(가평), 소고기 육포(횡성) 등으로 구성됐다. /박정익 기자



*Very Special*  
**FRESH BERRY**



논산딸기주스  
Nonsan  
Strawberry Juice  
**6,900**



논산딸기  
바나나스노우  
Nonsan Strawberry  
Banana Snow  
**6,900**



논산딸기 베리라떼  
Nonsan Strawberry  
Berry Latte  
**6,900**





# 신용사면에 25만명 혜택 예상… 2금융, 우량차주 이탈 우려

2금융, 우량차주 확보 마케팅 수포  
신용회복에 은행 대환대출 시도 땀  
저신용자만 남아 부실 확대 가능성  
카드사도 연체율 위험 부담만 증가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우량  
고객 이탈 우려가 커진 반면 저신용차  
주 유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금융위  
원회는 ‘서민과 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출금을 상환한 중저신용  
차주의 연체정보를 삭제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발생  
한 연체 이력을 지우면서 소상공인과  
중저신용자의 신용회복을 돕겠다는 취  
지다. 대상차주의 신용점수가 39점 안  
팍으로 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시름이 깊어지



금융당국이 신용사면 정책을 발표하면서 2금융권의 우량고객 이탈 우려와 저신용차주 유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뉴시스

고 있다. 중신용차주 25만명이 은행권  
대출자의 평균 신용점수인 863점을 넘  
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신용점  
수가 오를 중신용차주가 은행권으로 대  
환대출을 시도하면 지난해 애써 모집한  
우량차주가 이탈하게 된다. 아울러 상  
대적으로 취약한 차주만 남게 되면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부실 차주의 대출 한도가 확대되는  
것 또한 부작용으로 지목된다. 연체율  
증가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이란 분석  
에 무게가 쏠린다.  
업계에서는 신용점수 700점대 차주  
가 대환대출을 시도거나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금융당국은  
차주 250만명의 신용점수가 701점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우량  
차주 확보를 위해 쏟아부은 마케팅이  
수포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상  
환능력이 그대로인데 대출 한도가 상승  
하면 연체율 및 부실을 그대로 떠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신용카드사에는 각별한 연체율  
관리가 요구된다. 저신용자 15만명의  
신용점수가 카드발급 기준인 645점을  
상회할 것이란 예측이 나와서다. 저신  
용자의 경우 소비수준과 상환능력이 저  
조한 만큼 시장점유율(MS) 확대를 기  
대하기 어렵고 연체율만 더 오를 수 있  
어 사실상 위험 부담만 높아졌다는 것.  
카드론과 리볼빙 잔액이 상승세를 보  
이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리  
볼빙 잔액은 연간 2000억원 가까이 상

승하면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분기 전업카드사 8곳(신한·삼성  
·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  
카드)의 연체율 평균은 1.6%다. 지난  
2022년 동기(0.98%) 대비 0.62%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 증가는 대손충  
당금 추가 적립으로 이어지는 만큼 실  
적에 악영향을 준다.

일각에서는 신용사면 이후 발생할 부  
작용을 일축했다. 카드사와 저축은행  
모두 신용관리 정책을 장기간 확립한  
만큼 일부 저신용차주가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풀이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각 사별 신용  
평가모델 등 내부 가이드라인 및 규정  
이 마련된 상태다”라며 “지난해를 시작  
으로 건전성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 만  
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  
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 작년 휴면카드 140만장… 매일 4000장 장롱行

휴면카드 늘수록 매몰 비용 증가  
금융사기 고도화에 도용 우려도

지난해 주요 카드사의 휴면카드가  
150만장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매일 4000장 이상의 카드가 장롱 속  
으로 들어간 셈이다. 휴면카드란 1년 이  
상 사용실적이 없는 신용카드를 의미한  
다. 휴면카드는 카드사의 매몰 비용 증  
가는 물론 금융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  
는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업 카드사 8곳(신한·삼성·K  
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  
드)의 누적 휴면카드는 1388만3000장  
이다. 이를 은행 소속 카드사인 NH농  
협카드까지 확대하면 1591만장에 달한  
다. 같은해 1분기(1442만3000장) 대비  
148만7000장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휴  
면카드가 늘어난 배경에는 지난해 2019년  
시행한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 폐지가  
자리 잡고 있다.

카드사 중 지난해 휴면카드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현대카드다. 지난해  
4분기 현대카드의 휴면카드 수는 208만  
8000장이다. 같은해 1분기(184만장) 대  
비 24만8000장 증가했다. 그간 업계에  
서는 휴면카드를 양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  
C)를 손꼽은 바 있다. 현대카드는 카드  
업계 내에서도 PLCC 마케팅이 활발한  
편이다. 지난해 말 현대카드의 휴면카  
드 비중은 10.84%였다.

연간 휴면카드가 가장 낮게 증가한  
곳은 하나카드다. 연간 6만2000장 상승  
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카드업계에서  
는 유일하게 휴면카드 비중이 줄었다.  
지난해 말 하나카드의 휴면카드 비중은  
14.91%로 연초(15.29%) 대비 0.38%포인트(p)  
감소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각 사별 신규  
회원 모집 전략, 영업 규모 등에 따라 휴  
면카드 관리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면서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트렌  
트 변화가 빨라지고 있어 관리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

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  
주현 금융위원장은 휴면카드 정리 시스  
템 도입을 시사한 바 있다. 휴면카드가  
늘어날수록 카드사의 매몰 비용이 증가  
할뿐더러 금융 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카드사 입장에서  
는 신용카드 출시를 위해 투입한 개발비와  
인건비 등이 수포로 돌아가는 셈이다.

여전히 금융 범죄 악용 우려도 남아  
있다. 소비자가 방치하고 있는 만큼 도  
용 등의 피해를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금융 범죄 기법  
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어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애써 만  
들어 놓은 신용카드가 방치되면 분별  
손해로 이어지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  
만 휴면카드로 이어지는 상품의 성격  
등을 파악해 다음 상품 개발에 참고할  
수 있는 만큼 득과 실이 모두 존재한다  
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KB금융, 미래 혁신기술 선도 ‘KB스타터스’ 모집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스타트업  
4월 말 경 약 20여 곳 최종 선발

KB금융그룹은 다음달 23일까지 유  
망 스타트업이 KB금융의 미래 협업과  
트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  
해 2024년 상반기 ‘KB스타터스’를 모  
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  
관인 창업진흥원의 ‘창업도약패키지대  
기업 협업 프로그램’과 연계해 진행되  
며, 모집 대상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스타트업이다.

KB금융과 협업이 가능한 금융·비금  
융(핀테크, AI, 빅데이터, 웹툰, 부동  
산, 헬스케어, 자동차, 통신, STO 등)

분야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이면 모두 지  
원 가능하다.

창진원과 KB금융이 공동으로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 심사를 진행한 후  
사업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등을 종합  
적으로 평가하여 4월 말 경 약 20여 개  
의 스타트업을 최종 선발하게 된다.

이번 모집과정에서 KB금융은 디지  
털플랫폼 서비스 분야와 업무 효율화에  
적용 가능한 생성형 AI와 같은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게 적극적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KB스타터스로 선정  
된 스타트업에게는 ▲KB국민은행을비  
롯한 KB금융 계열사와의 연계 협업 ▲  
세무, 회계, 법률, 특허 등 내·외부 전문  
가를 통한 경영 컨설팅 제공 ▲투자 유

치 지원 ▲채용 지원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스타트업 전용 업무 공간 제공  
등 성장 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창진원의 사업화 자금이 제공된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은 스타  
트업 생태계와 상생하고 동반 성장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혁신 스타  
트업을 선발하여 성장 단계별로 다양한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KB스타터스 모집에 미래 혁신 기  
술을 선도할 우수한 역량을 갖춘 스타트  
업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과 창진원은 협약을 통  
해 지난 2022년부터 총 32개 스타트업  
에게 40억4000만원 규모의 사업 자금을  
지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BNK부산銀, 도전! 시니어 금융골든벨 실시

상으로 ‘도전! 시니어 금융골든벨’을 실시했다..

BNK부산은행은 지난 30일부터 31일까  
지 양일간 부산지역 시니어 900명을 대

/부산은행

## 전국 215만가구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안산 반월 산단 배후도시 등 108곳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적용

전국 108개 지구, 215만가구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으로 재  
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  
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 103만가구  
에서 적용 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난 수  
치다. 여기에는 안산 반월공단 및 수도  
권 1기신도시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  
별법상 여기서는 안전진단 등이 모두  
생략된다.

31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노  
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  
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  
도시의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  
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희부지를 포  
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단, 구도심과 유희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  
다. 여기에는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  
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  
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포함하고, 구  
도심·유희부지까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이 확  
대됐다.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  
도시 등 총 108곳, 215만가구가 노후계  
획도시 특별법을 적용받는다. 서울에서  
는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  
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적용 대상  
이다.

경기는 1기 신도시 5곳과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이 해당된다.

인천은 구월, 연수, 계산과 함께 만수  
일대, 부평 일대 등 5곳이 포함된다. 비  
수도권에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곳은  
▲ 부산 5곳 ▲ 대구 10곳 ▲ 광주 6곳  
▲ 대전 6곳 ▲ 울산 2곳 ▲ 강원 5곳 ▲  
충북 8곳 ▲ 충남 1곳 ▲ 경북 2곳 ▲ 경  
남 6곳 ▲ 전북 6곳 ▲ 전남 4곳 ▲ 제주  
3곳이다.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둘러싸  
인 블록 단위로 2개 단지 이상이 통합  
재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단지가 없는 경  
우에는 1개 단지도 특별정비에정구역  
으로 지정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역에서 반경 500m 이내 역세권  
은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했다. 용적률  
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  
다. 건폐율과 건물 간격은 국토계획  
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대한항공 글로벌 톱클래스 ‘발돋움’

# 아시아나 기업 결합심사 日 승인… 美·EU 막판 활주

주요 14개국 중 11개국 승인  
“日, 필수 신고국 이상 의미 가져”

항공업계, EU 조건부 승인 관측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심사가 일본 경쟁당국의 벽을 넘었다. 이로써 4년 전 14개국가를 대상으로 출발한 대한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는 유럽연합(EU)과 미국만 남게 됐다.

대한항공은 31일 필수 신고국가인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득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이후 오랜 기간동안 폭 넓은 시정조치를 사전 협



대한항공 항공기

의해온 바 있다.

당시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까지 결합할 경우 한-일노선에 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서울 4개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

적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해 진입항공사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 Block Space Agreement)’ 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은 남아 있는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에 진행된다.

일본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대한항공은 사실상 미국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겨두게 됐다. 앞서 대한항공은 주요 14개국 가운데 EU와 미국, 일본을 제외한 11개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EU는 오는 14

일 전까지 심사를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겠다고 입장을 내놨으며 사실상 조건부 승인을 내릴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동북아 허브 공항 지위를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곳”이라며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이 다른 필수 신고국가의 승인보다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통합을 위해 2021년 1월 14일 이후 총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일본을 포함해 12개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지난해 매출 14.7兆… 사상 최대치 경신

영업이익 1조5869억 달성  
동남아노선 등 수익성 제고

대한항공이 여객 수요 회복과 하이클래스 탑승률 증가로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3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별도기준 지난해 실적으로 매출 14조5751억원, 영업이익 1조5869억원을 달성

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8.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5.0%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 3조9801억원, 영업이익 1836억원을 올렸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64.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매출과 4분기 매출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지만 글로벌 공급망 문제 및 여객기 벨리 공급 감소 여파로 2022년 2조883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에 대한 기저효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감소에 대해서는 2023년 연간 성과목표 및 안전 목표 달성에 따른 인건비가 4분기에 일시적으로 반영된 영향이라고 대한

항공은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여객 부문은 2019년 대비 공급이 80%대 회복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여객 수요 회복 및 하이클래스 탑승률 증가에 따라 2019년 대비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 부문은 여객기 화물칸(Belly) 및 해운 정상화 등에 따라 코로나19 기간 수준의 반사 이익은 없었지만 2019년보다 더 높은 수익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대한항공은 밝혔다.

올해 1분기 여객은 항공수요와 공

급이 정상화될 수 있는 만큼 견조한 장거리 수요를 바탕으로 동남아 관광노선 및 일본 지선공급 확대 등을 추진하며 수익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1분기 화물은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으로 전통적인 항공화물(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수요 반등 시기가 불확실하지만 전자상거래 수요 강세 유지 및 국제정세 위기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 K-배터리, ‘수요둔화·저가공세’ 이중고… ‘질적성장’ 반전 모색

올해 배터리 팩 평균가 하락 전망  
원통형 등 고객 맞춤형 제품 확대

국내 배터리 업계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 둔화와 중국 배터리 업체의 저가공세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배터리 팩 평균 가격은 kWh(킬로와트시)당 133달러로 전망된다. 지난해 배터리 팩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14% 하락한 139달러로 추산됐다. 전기차 수요는 둔화하는데, 중국발 배터리의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중국업체의 반값 전략이 지속가능성이 있을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분석한다. 중국기업의 경우 보조금과 국가 정책이 뒷받침 돼 가격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으나, 중국 내부 업체들끼리도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부에서도 가격 경쟁 고도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라며 “중국 자체에서 시장 재편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업계는

질적 성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LG에너지솔루션은 니켈 함량 90% 이상의 하이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제품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원재료 공급망 확보와 소재 전환 등을 통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2027년 리튬황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삼성SDI는 양극재 생산시설 확장에 상당한 투자를 단행한다. 회사는 울산시와 산업단지개발 및 배터리 관련 생산공장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약 1조원을 투자해 울산에 양극재와 배터리 관련 생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극재의 안정적 조달을 확보하고 원가 경쟁력을 상승할 전략이다. 양극재의 배터리 제조원가 비중이 높은 만큼 내재화율이 높을수록 원가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온은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매진 중이다. 앞서 최재원 SK온 수석부회장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소비자 가전 전시회인 ‘CES 2024’에서 “원통형 배터리 개발이 꽤 많이 됐다”며 “양산 시점은 고객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출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회사는 원통형

배터리 개발을 완료해 3가지 배터리 폼팩터(파우치형·각형·원통형)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 사양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나 스마트 팩토리 및 제조 경쟁력을 높여가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라며 “중국업체가 가격 인하를 한다고 국내 업계도 그만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기차 수요 둔화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6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올해 전기차 시장이 약 20% 중반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 매년 30%가 넘었던 시장 성장세가 과도기에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객사인 완성차업체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집중한다. 앞서 배터리 3사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고객사 신뢰 확보’를 공통 키워드로 꼽은 바 있다. 고객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부응하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 LIG넥스원, 장사정포요격체계 설비 고도화

전용 조립·점검장 완공

LIG넥스원이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가·군사 중요시설 등을 방호하기 위해 개발 중인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전용 조립·점검장’을 완공했다. 이를 통해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성공적 개발과 함께 ‘유도무기 체계종합’ 분야의 선도적 입지를 굳건히 한다는 계획이다.

LIG넥스원은 30일 구미하우스에서 신익헌 사장을 비롯해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군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장사정포요격체계 전용 조립·점검장 신축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준공행사는 장사정포요격체계 개발의 주관기관과 시제업체가 함께 전용 설비의 완공을 기념하고, 개발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총 70억원을 투자해 완공된 ‘장사정포요격체계 전용 조립·점검장’은 유도무기 체계조립, 점검장,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시스템 등 최적화된 장비 및 설비를 갖췄다.

/양성운 기자

## 두산밥캣, 국내 최초 수소 지게차 1호기 출하

두산밥캣이 국내 최초로 수소 지게차 상용화에 나선다.

두산밥캣은 30일 인천 지게차 공장서 ‘수소 지게차 1호기(사진)’ 출하식을 가졌다고 31일 밝혔다.

행사에는 박형원 두산밥캣코리아 사장과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두산밥캣의 수소 지게차 1호기는 20kW 출력의 연료전지를 탑재한 3톤급 모델로, 건설기계연구원에서 테스트를 거친 뒤 고려아연 온산 제련소로 납품된다.

/양성운 기자



# 네카오, 지난해 매출 ‘역대최고’ 전망… 체질개선 박차

〈네이버·카카오〉

네이버, 커머스 부분 실적효과 역할  
4분기, 전년 동기비 40% 성장예상

카카오, 매출 15%↑ 영업익 18%↓  
경영공백에 따른 수익성 감소 영향



네이버, 카카오 로고.

/각사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네이버의 매출은 10조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하지만 양사의 영업이익은 3배 이상 차이난다. 네이버는 1조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카카오는 4000억대에 그칠 전망이다.

31일 금융정보업체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네이버가 다음 달 2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매출은 2조5675억원, 영업이익 3964억원을 달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9조7011억원, 1조4797억원을 기록했을 전망이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0%, 영업이익은 13.4% 증가한 수치다.

이는 커머스 부분이 실적 효과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증권가는 네이버의 지난해 4분기 커머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성장한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도착보장 유료화, 브랜드스토어 수수료율 인상 등이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 웹툰 매출은 약 4000억원 가까이 증가할거란 분석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네이버의 지난해 매출이 증권가 전망치를 상회해 10조원을 기록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네이버의 게임 특화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 숏폼 서비스 ‘클립’, 광고주향 AI 광고 솔루션 ‘클로바 포 애드’ 등 신규 서비스들이 중장기적으로 네이버 광고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윤예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검색 광고는 견조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커머스도 도착배송 확대를 통해 수수료율이 상향됐다”며 “주요 자회사인 네이버웹툰의 나스닥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네이버웹툰) 매출 규모와 글로벌 점유율을 고려했을 때 기업가치만 10조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카카오 또한 역대 최고 연간 매출이 예상되지만 영업이익은 하락할 전망이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카카오 지난해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조1667억원, 4751억원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매출은 14.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8.1% 줄어든다.

이는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김범수 창업자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들이 수사를 받은 데 따른 경영 공백이 수익성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카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매출은 2조2230억원, 영업이익 1502억원을 기록할 전망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3%, 49.7% 늘어난 수치다.

증권가는 엔터테인먼트 및 엔터프라이즈의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소 등이 이익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클라우드 이외의 사업을 정리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실적 반등을 도모한다.

올해 네이버는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를 기업간거래(B2B), 기업정부간(B2G) 사업을 위한 서비스 단과 클라우드에 녹여내면서 실적 상승을 이끌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생성

형 AI를 적용한 ‘큐:(CUE:)’의 모바일 버전 및 앱 버전과,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치지직’ 정식 오픈 등도 실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커머스 사업 확장,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등으로 실적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카카오헬스케어의 혈당관리 솔루션 애플리케이션(앱) 파스타가 출시를 앞두고 있어 실적 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오는 3월 정신과 내정자가 카카오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도 체질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에 대해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며 올해 카카오톡 탭 개편과 그에 따른 광고 노출도 증가, 자회사 실적 성장, 비용 절감 노력이 더해져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이후 경기마저 회복된다면 실적 성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D램·낸드플래시 등 반도체 성장 뚜렷할 것”

세미콘코리아 2024 간담회  
올 반도체산업 ‘회복의 해’ 표현  
반도체 메모리·장비 성장폭 클 것

반도체 시장이 지난해 깊은 침체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반등할 전망이다.

국제반도체제료장비협회(SEMI)는 3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세미콘코리아2024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 전망을 제시했다.

첫번째 강연을 맡은 테크인사이츠 안드레아 라티 디렉터는 올해를 반도체산업 ‘회복의 해’라고 표현했다. 정점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가시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기적으로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별로는 삼성전자가 10년 동안 가장 많이 지출했지만, 중국이 빠르

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생산 능력도 중국이 가장 많은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하며 국가별로 반도체 지원 등도 영향이 클 것으로 봤다.

산업별로는 올해 메모리 성장이 뚜렷할 전망, D램과 낸드플래시 모두 회복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비메모리가 주춤, 산업용과 자동차 등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장비 역시 성장을 기대하며 AI와 패키징 관련 부문에서 성장폭이 가파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SEMI 클락청 수석디렉터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 안정화와 통화 정책 완화를 예상하며 올해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확신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스마트폰과 PC 등 전방 산업도 안정화됐

다고 덧붙였다. 장비 시장에서는 중국이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낸드플래시가 시장이 회복으로 투자도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내다봤다. 전 세계적인 생산량 증가도 기대했다. 중국은 물론 한국과 대만, 미국과 일본에 이어 인도와 동남아까지도 반도체 산업 확장을 예상했다. 국가별 12mm 웨이퍼 장비 투자는 한국이 가장 많지만, 중국이 앞서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기적으로는 AI와 HPC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도 반도체 팹 투자도 다각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재용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LGU+ “U+tv로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보세요”

인기 오리지널 콘텐츠 제공

LG유플러스는 내달 1일부터 IPTV ‘U+tv’와 모바일 TV 플랫폼 ‘U+모바일tv’를 통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인기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는 전 세계 2억명 구독자를 보유한 글로벌 OTT 서비스다. 아마존은 지난 2022년 할리우드 대표 영화사인 MGM을 인수했으며, 칸 영화제·아카데미 시상식·에미상 등에 노미네이트 된 다수 콘텐츠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오리지널 영화와 드라마 270여편을 VOD 형식으로 제공한다. 대표 영화



LG유플러스 직원이 U+tv로 제공되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오리지널 콘텐츠를 소개하는 모습.

/LGU+

는 ‘7500’, 내일의 전쟁, 더 리포트 등이며, 대표 드라마는 높은 성의 사나이, 모차르트 인 더 정글 등 28개 시리즈다.

정진이 LG유플러스 미디어사업트 라이브장은 “앞으로도 전 세계의 다양한 드라마·영화를 제공하며 고객

시청경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삼성 ‘갤럭시 S24’ 전 세계 공식 출시

공식 출시한 31일 서울 마포구 삼성스토어 흥대를 찾은 시민이 갤럭시 S24 시리즈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싱가포르 등을 시작으로 전 세계 120여개국에 순차 출시된다.

삼성전자가 자사 첫 AI(인공지능)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삼성전자

## KT, 유망 스타트업에 최대 2억 지원

브릿지 창업도약패키지 3기 모집  
KT전담 사업부서 매칭 등 제공

KT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KT 브릿지 창업도약패키지 프로그램 3기를 오는 2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경북 대학교와 함께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지원포털 K-스타트업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창업도약패키지 프로그램은 3~7년차 도약기에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KT와 공동으로 협업할 과제를 선정하고 기술검증(POC)과 함께 최종 공동서비스,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 스케일업 프로그램이다.

공모분야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미디어, 콘텐츠, ICT융합서비스 등 총 5개로 KT와 협력 가능한 기술, 서비

스, 콘텐츠를 가진 기업이다. 선발된 스타트업은 기업당 최대 2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고 신사업 추진을 위한 KT전담 사업부서 매칭, 멘토링을 제공받는다.

또 중동 두바이에서 열리는 GITA X 등 해외 전시회 참여, 글로벌 PoC 등 프로그램과 국내외 벤처캐피탈(VC) 투자 유치와 KT그룹, KT윙펀드 등을 통한 투자 검토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KT에서 운영하는 서울, 대전 등 입주 공간, 다양한 테스트 랩을 지원하고 KT에서 보유한 특허 무상 양도 기회 역시 제공한다. KT는 신성장분야 파트너와 소통, 사업협력을 위한 플랫폼인 에코온에 등록해 KT 사업정보, 제휴, 협력기회 등 지속해서 제공할 방침이다.

/구남영 기자



JUNO GOLF  
PREMIUM GOLF STUDIO

# 골프, 유튜브로 싱글되기!!

검색하세요  
주노골프 

핵심 콕! 깔끔하고 명쾌한 원포인트 레슨!  
반복시청만으로도 누구나 싱글!  
김준호 프로의 골프레슨을 무료로  
시청하세요



김준호  
프로

- 📍 KPGA 프로
- 📍 전) 국가대표 및 상비군 주장
- 📍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부 졸업(골프전공)
- 📍 미국 Brian Mogg 골프스쿨 3년 수료
- 📍 호주 Ryde Paramatta Club 대표선수(4Y)
- 📍 미국 호주에서 다년간 골프 레슨

■ 유튜브 > 주노골프  
■ 인스타그램 > juno\_kim\_44

주노프리미엄골프스튜디오

070-4243-9238

위치: 강남구 강남대로146길 8  
B1 주노골프스튜디오





# “성과급 지급하려고”… 기업 자사주 처분에 개미들만 ‘한숨’

카카오, 자사주 5729주 처분 결정  
네이버, 공시 이후 10.08% 하락  
주주환원 요구 높아지는 만큼  
기업, 주주가치 제고 영향 고려해야

기업들이 성과급 지급을 위한 자사주 처분, 채무상환용 유상증자 등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실망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 내에서 주주가치 제고,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부상하는 만큼 주가 흐름을 좌우하는 자기주식 처분 결정에 신중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임직원 성과급 및 퇴직금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처분을 결정한 상장사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카카오와 네이버를 들 수 있다. 특히 카카오는 연말 ‘산타텔리’와 연초 효과에 힘입어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었으나 지난 11일 이후 현재까지 13.65% 하락했다. 카카오는 지난 11일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지급 목적으로 자사주 5729주를 처분



/유투이미지

결정했다. 앞서 4일 네이버도 자사주 처분 공시를 낸 이후로 현재까지 10.08% 하락했다. 물론 동일 기간 코스피지수의 하락률도 1.77%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주가 하락세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사주 처분은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유통되는 주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나 최근에는 국내 증

시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던 만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여지가 높은 상황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주환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주주가치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여진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둔화된 상태에서 자사주가 풀리게 되면 매수주체가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큰 가격 하락을 야기할 수 있

는 수급상의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주가의 흐름과 자사주 물량이 풀리는 시기는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기업들의 움직임은 아직 소극적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채무상환 목적이 포함된 유상증자 금액은 총 2조1556억원으로 전년 1조1155억원 대비 93.2%나 증가했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상증자 발행 금액은 전년 대비 26.6% 감소했다.

전체 유상증자 금액이 줄었음에도 채무상환 목적의 유상증자 규모가 늘어났다는 점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있어서 답갈지 않은 소식이다.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는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기 때문에 주식 발행량이 증가하는 만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가치는 희석된다. 특히나 미래 투자목적이 아닌 채무상환식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으로 다가오

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CJ CGV와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기존 주주들의 우려를 고조시켰다. CJ CGV와 SK이노베이션은 유상증자 계획 발표 직후 각각 21.1%, 6.08%씩 미끄러졌다. 이후로도 약세를 지속하며 현재까지는 51.74%, 31.72%씩 하락하며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해 시장의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아무리 꼭 필요한 유상증자라고 하더라도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과 완벽한 자금활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차입, 사채발행과 더불어 비업무용 자산 및 비주력 사업부 매각 등 다양한 옵션도 함께 고려해 유상증자가 최적의 자금조달 방안임을 주주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AB자산운용 “6월 금리인하 전망… 채권·헬스케어 종목 투자 추천”

美 1.5% 내외 성장… 고용시장 견조  
2분기 말 연준 목표치 2% 근접할 듯  
국내 주식시장, 글로벌 시장 영향받아

얼라이언스번스틴(AB)자산운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6월 금리인하를 시작으로 5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재홍 AB자산운용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2024년 글로벌 주식·채권시장 전망 간담회에서 “올해 미국 경제 성장은 둔화하겠지만 고용시장이 견조한 데다 물가 압력도 연준의 목표치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국 금리인하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유 매니저는 “올해 같은 경우 미국 경제는 1.5%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유재홍 AB자산운용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4년 상반기 글로벌 주식 및 채권 시장 전망’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여 성장은 둔화가 되지만 고용시장이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어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받쳐주는 받침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견조한 고용시장이 물가 압력 완화에 부정적일 수는

있지만 최근 3~6개월 미국 물가 상승률의 단기 움직임을 보면 이미 완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2분기 말에는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6월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시장은 그전에 움직이기 때문에 현금 투자 보다는 채권에 미리 투자해 유지하는 전략이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매니저는 “채권시장 중요 포인트는 금리인하 폭, 시기보다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금리인하를 시작한다는 것”이라며 “금리 통화정책의 변곡점에 있어서는 초창기에 투자하고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주식 시장의 경우 올해는 지

난해 기술주 위주의 쏠렸던 상황이 정상화될 것이라며 개별종목의 실적 성장에 집중되고 소외됐던 종목들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욱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올해 경제성장 강화와 인플레이션 하락, 경제성장 약화와 인플레이션 상승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하락 같은 3가지 시나리오가 모두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별 종목의 우량성에 집중을 해 종목을 선정하고 그러한 종목들로 구성돼 있는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업종에서는 상대적으로 거시경제 민감도가 낮은 헬스케어를 추천했다. 이 매니저는 “헬스케어는 작년 대형 기술주에 대한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소외가 됐던 업종이었다”면서 “현재 밸류

에이션(가치평가)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고 올해 실적 성장세 역시 견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투자 유망 국가로는 미국을 꼽았다. 미국의 경우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타 시장에 대비해서 높은 수익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매니저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화두가 됐던 여러 가지 세계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나 혹은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의 전환 등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며 한국 주식시장도 펀더멘탈이 우량한 주식들을 중심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원관희 기자 wkh@

## 메리츠증권, ‘Bond 365’ 채권종합 서비스로 확대개편

장내·장외 채권 매매 가능해져

메리츠증권은 고객에게 더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기사채 전용 투자 서비스였던 ‘Bond 365’를 채권종합 서비스로 내일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단기사채뿐 아니라 장내·장외 채권 매매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기존 단기사채는 최소 투자금 1억원 이상 조건으로 거래가 가능했지만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장내외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채권 상품이 추가돼 적은 투자 금액으로도 ‘Bond 365’에서 채권을 매매할 수 있다.

단기사채 상품들의 경우, 메리츠증권 단기사채 4종과 회사가 엄선한 자산

유동화 단기사채들을 제공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단기사채 4종은 회사 신용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단기사채로, 만기에 따라 짧게는 7일부터 1개월, 2개월, 3개월물 중 선택 가능하다.

오직 메리츠증권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으로 각 상품별 수익률은 7일물 연 3.65%, 1개월물 연 3.85%, 2개월물 연 3.90%, 3개월물 연 3.95% 등이다.

단기사채 외 새롭게 추가되는 장내·장외 채권 상품은 별도 최소 투자금 없이 상품별 매매가에 따라 원하는 수량만큼 거래가 가능하다. 지난해 말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수요가 늘어나며 ‘채권 개미’ 열풍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 이같이 채권 상품을 확대했다.

메리츠증권은 상품 다양화와 함께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Bond365’의 사용자환경(UI)·사용자경험(UX) 디자인도 대폭 개선했다.

채권 상품별로는 단기사채, 채권(장외), 채권(장내)가 별도 탭으로 구분돼 원하는 상품별로 일목요연하게 확인 가능하다. 모든 채권 상품은 금리별, 기간별 등 간편한 필터로 검색과 정렬이 가능해 투자자들이 상품별 특성과 금리를 비교하는데 편리하다.

이번 개편에서는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채권에 많이 몰리고 있는 만큼 채권 투자 정보 제공에도 집중했다. 보유 및 관심 등록한 채권의 최신 뉴스를 확인할 수 있는 ‘Bond365 News’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됐다.

/신하은 기자

## 한투운용 ‘OCIO알아서펀드’ 3종, 수익률 1위

1년 수익률 유형별로 모두 차지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 3종이 국내 OCIO펀드 34개 상품 중 1년 수익률 1위에 올랐다고 31일 밝혔다. 3종의 상품은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C-Re클래스), 한국투자OCIO-DO알아서수익펀드(C-Re클래스), 한국투자OCIO-DO알아서인컴펀드(C-Re클래스)다.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기준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 한국투자OCIO-DO알아서수익펀드, 한국투자OCIO-DO알아서인컴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각각 10.56%, 14.65%, 7.94%로 국내 OCIO펀드의 1년 평균 수익률인 6.00%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

했다. 6개월 수익률은 각각 7.93%, 7.46%, 8.40%로 확인됐다.

특히 유형별로 모두 1위를 차지한 점이 눈에 띈다. OCIO펀드는 투자자별 투자성향과 목적에 따라 중립형(혼합형), 성장형(수익형), 안정형(인컴형) 등으로 구분되며, 그 중 성장형은 공격적 투자자, 안정형은 보수적 투자자를 위한 상품으로 분류된다.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 시리즈는 국내 출시된 OCIO펀드 중 각 투자성향별로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시리즈 중 대표 펀드 격인 한국투자OCIO알아서펀드 설정액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약 420억 규모에서 지난 1월 30일 기준 약 630억 규모로 성장하며 1개월새 200억원 가량 늘었다. /신하은 기자



# 청약홈 개편·총선이슈… 이달 수도권 분양 1.6만 가구 ‘후끈’

서울 1178가구, 경기7041가구 등  
총 17개 단지서 1만1679가구 분양  
곧 봄 이사철… 신축 수요 쏠릴 듯

2월 중 수도권에서 1만여 가구가 넘는 분양 물량이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홈 개편이 오는 3월 예정된 가운데 4월 총선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2월 중 분양 물량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는 17개 단지, 총 1만1679가구(임대 제외)가 나올 예정이다. 이는 전년 동월(4585가구) 대비 2.5배 이상 증가한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178가구(3곳) ▲경기 7041가구(8곳) ▲인천 3460가구(6곳) 등이다.

당초 시장에서는 올해 분양 물량이 2~3월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

만 오는 3월 한국부동산원이 청약홈 개편에 나서면서 사실상 분양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자 2월에 분양 물량이 집중되고 있다.

청약홈 개편 작업은 3월 4일부터 22

일까지 약 1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청약제도 규칙은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간에 아파트 분양은 모두 중단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에 따라 청약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를 잠시 멈춘다고 설명했다.

4월에 치러질 총선도 2월에 분양 물량을 몰리게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통상 분양 현장에서는 총선 시즌을 피해 분양 일정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선거에 쏠리다 보니 홍보가 어렵고, 선거 이후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 대기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수도권의 전셋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넷째 주(22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7% 올랐다. 오름폭이 전주(0.07%)와 같은 상승세를 보이며 36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경기(0.04%→0.05%)와 인

천(0.01%→0.03%)은 전주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은빛1단지’는 이달 전용면적 59㎡가 2억 8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지난해 12월(2억6000만원) 대비 2000만원 올랐다. 같은 기간 인천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하늘도시 우미린 2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84㎡의 전셋값이 2억에서 2억 4000만원으로 1개월 만에 4000만원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설 연휴가 끝나고 분양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지만, 올해는 3~4월에 이슈가 많은 만큼 건설사가 최대한 많은 물량을 쏟아내는 모습이다”라며 “수도권 전셋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인기 지역 내 알짜 단지에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 “중대재해법 2년 유예법안 반드시 처리를” 中소옴부즈만, 작년 규제어로 3633건 발굴

中소 17개 협회 등 3500명 강력추구  
“83만 소상공인 예비 범법자 전략  
폐업 위기에 일자리도 잃게 될 것”

중소기업 사장님들 3500명이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로 달려갔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건설업 관련 17개 협회, 단체 소속 기업 대표 약 3500명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중기중앙회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전문

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모두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면서 83만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현장에선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고 말겠다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며 “국회는 중소기업이 폐업 공포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을 되찾고 근로자들도 실직 걱정을 덜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해 달라며 10회 이상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해 바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업계 대표단은 최근까지 수 차례 국회를 방문, 준비기간을 더 달라고 호소했다. 또 2년 유예가 결정되면 추가 유예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1일 연다. 2월 임시국회는 2월 19일 예정돼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기업현안 간담회 등 통화 1239건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3633건에 달하는 기업현안의 규제애로를 발굴·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39건이 수용 또는 일부 수용 등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력 입국에 정일 확인 불편 해소’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3년도 활동결과’를 지난 23일 국무회의의 보고를 거쳐 31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에만 ‘지역별 특화산업 간담회’(중소기업 S.O.S Talk)를 비롯해 협·단체와 함께하는 기업현안 간담회 등 총 67회의 현장 소통 자리를 가졌다. 그동안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예정일을 알 수 없어 생산계획에 차질을 빚고 새 인력을 맞이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옴부즈만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고용부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 법무부의 비자 발급정보를 연계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 외국인력

에 대한 입국예정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옴부즈만은 또 현장 기반의 상시적인 기업 규제애로 발굴·처리 이외에 특정 테마를 선정해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일괄 개선하는 성과도 냈다.

먼저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 마련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현실화 ▲청소년의 악의적 시설이용 시 선풍한 숙박업자 보호 등 현장에서 공감이가능하도록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 117건을 일괄 개선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 한 해 동안 ‘규제해결사’답게 옴부즈만은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만나고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올해에는 업종·업체별 현장미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현장의 다양한 규제애로를 집중 발굴하고, 과제별 특성에 따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정부 규제개선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추동력을 강화하고 규제 개선 효과를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도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 푸조, 챗GPT 도입 등 전동화전략 공유

‘E-라이언 데이 2024’ 개최

푸조가 전동화 전략을 강화하며 미래 리더십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챗GPT까지 도입한다.

푸조는 30일 온라인에서 ‘E-라이언 데이 2024’를 개최하고 ‘E-라이언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했다.

E 라이언 데이는 푸조가 연간 전동화 전략을 소개하는 자리로, 지난해 ‘E-라이언 프로젝트’를 처음 공개한 바 있다. ▲스텔란티스 STLA 플랫폼 기반 제품 및 서비스 생태계(Ecosystem) ▲차량 운행 전 과정을 케어하는 고객 경험(Experience) ▲2024년 말까지 100% 전동화(Electric) 라인업 출시 계획 ▲최소한의 전력으로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효율(Efficiency) ▲환경(Enviro

nement)을 위해 2038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의 ‘5E’를 포함한다.

푸조는 올해에도 탄소 중립 모빌리티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까지 유럽 전기차 시장 선도 브랜드로 도약한다는 전략, 다양한 전기차 라인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E-408’과 ‘E-5008 SUV’를 라인업에 추가한다. 승용차 9종과 경상용차 3종 등 전기차 라인업을 12종으로 확대하며 유럽 대중 브랜드 중 가장 많은 모델을 확보했다. 이미 경상용차 판매로는 1위, 유럽 B세그먼트 시장도 선도했다.

푸조는 주행거리 연장 의지도 이어갔다. 최대 700km를 달리는 뉴 푸조 E



푸조 E-3008.

3008 SUV에 이어 뉴 푸조 E-208도 WLTP 기준 566km를 제공한다.

챗GPT 기술도 채택한다. 아이콧핏에 내장하고 ‘OK 푸조 음성 어시스턴트’와 연결해 운전자 요청에 대응한다. 5개 시장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화한다.

구매 편의도 강화한다. ‘푸조 얼루어 케어’ 프로그램으로 8년 또는 16만km 품질보증, 주행 거리에 따라 할부금을 책정하는 ‘푸조 커스터마이즈드 리스’ 프로그램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재웅 기자 juk@

## 중기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80곳 선정

기반조성 21곳, 집중육성 40곳 등

대전 각 2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80개 시장을 새로 선정, 시장별로 맞춤형 지원을 한다.

31일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특성화시장은 첫걸음 기반조성 21개,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을 연계해 집중 육성하는 문화관광형 40개,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19개 시장으로 각각 구분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17개, 경기 16개, 경북 7개, 울산·전남 6개, 충북 5개, 부산·충남·경남 4개, 인천 3개, 대구·광주·

중기부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문화관광형 시장 2곳, 디지털시장 1곳을 릴레이로 방문해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꾀할 예정이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특성화시장의 시장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신규 고객 유입 확대, 매출 증가 등을 유도해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기부는 전통시장·소상공인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민생 속으로 쉽게 달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 AI가 만든 미래교육혁명… 디지털 교과서 등 변화하는 학교

교육부, 영어·수학 등 개발완료  
정보교과 수업도 2배 늘릴 예정  
정부, 미래디지털 인재 양성에  
올 예산 중 특별교부금 5333억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김수인 양은 매주 수요일 방과후 수업으로 '웹툰교실'에 간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수인 양은 웹툰교실에서 만화를 그리는 법과 함께 터치스크린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함께 배운다. 수인 양의 친구인 박서연양은 '로봇와이프'를 듣고 있다. 여러 종류의 부품을 코딩 순서에 따라 직접 조립해 만드는 로봇은 배터리와 모터로 작동도 한다. 수인 양은 "서연이가 배우는 수업이 재밌어 보이지만 웹툰작가가 되고 싶어 웹툰교실에 간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학교 수업도 변했다.

교육부는 오는 11월까지 AI 디지털 교과서(영어·수학·정보·특수교육·국어) 개발을 완료해 내년부터 현장에서 실제 활용하고 정보 교과 수업시수도 2배로 늘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대상 학년에 1인 1디바이스 보급을 완료하고, 학교 네트워크 정비 및 인프라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미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예산 중 5333억여 원을 교육부 디지털 교육혁신 특별교부금으로 배정했다.

최근 10년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한 산업이 새롭게 나타나 일상화에 이르며 디지털 활용 능력이 중요한 교육으로 떠올랐다. 국가교육회의가 진행한 미래교육관련대국민조사에서 응답자의 24%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강화되어야 할 교육'으로 정보교육 시수 확대 및 정보교과 신설과 관련 교사 확보를 꼽았고 미래사회 대비 역량강화와 현재 사회와 삶을 위한 교육(19.3%)이 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디지털 새싹캠프가 열리는 세종시 다정초등학교를 찾아 디지털 체험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뉴시스

를 이었다. 김대석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 기술발전은 '나'와 무관한 일부 분야에 한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AI는 거의 모든 분야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AI가 촉발한 미래교육혁명은 교육의 모든 영역, 모든 교과목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관심사도 크게 변화했다. 2014년 와이즈캠프가 조사한 초등학교 장래희망 1위는 연예인(38%), 운동선수(18%), 교사(14%), 의사·간호사(12%)순이었으나 지난해 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운동선수(13.4%), 의사(7.1%), 교사(5.4%), 크리에이터(유튜버) 5.2% 순으로 나타났다. 웹툰작가 또한 10위에 들었다.

세대 변화에 교육 기업들도 빠르게 변화했다. 전국 253개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진행 하는 대교에듀캠프는 올해 SW·AI 연계 교육을 위한 관련 전문 조직을 구성하고 방과후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적인 컴퓨터 교육은 물론, 코딩 수업,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융합교육 등 더 전문화 한 수업을 연다. 대교 관계자는 "방과후 길라잡이를 시작으로 현재 운영지역 외 사업 지역을 확장하고 SW, AI 관련 공공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엔도 지난해 에듀테크박람회에 활발히 참가해 자사의 디지털 교육 서비스 시연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경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박람회와 전남에듀테크박람회 두곳에 참가했다. AI코스웨어(AI courseware) 기업으로 참가하는 미래엔은 자사 교수활동 플랫폼 '엠티쳐'의 'AI클래스'와 지난해 신규 론칭한 초등 전과목 온라인 학습 플랫폼 '미래엔초코'를 시연했다.

김효정미래엔 디지털사업실장은 "올해 전국 각지에서 열린 에듀테크 박람회를 통해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 미래엔의 디지털 교육 서비스의 경쟁력을 선보일 수 있었다"며, "학기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지금 많은 분들이 박람회에 오셔서 'AI클래스'와 '미래엔초코'를 체험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 모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이모씨는 "고학년들에게는 학교에서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과 같은 스마트 기기를 지급하고 정보 교과가 아닌 수업 때도 활용하고 있다"며 "디지털 교육이 워낙 중요해진 만큼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교육현장에서 활용되고 모든 아이들이 새로운 기술과 기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KT&G, 차기 사장후보 1차 숏리스트 확정

사외 4명·사내 4명 등 총 8명  
2월 중순 2차 명단 공개 예정

KT&G 지배구조위원회(이하 지구위)는 31일 지구위를 열고 사외 후보자 4명과 사내 후보자 4명 등 총 8명을 사장 후보 심사대상자(1차 숏리스트)로 확정하고, 이날 구성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에 추천했다.

지구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총 8차례의 회의를 거쳐 후보자 공모 및 심사를 진행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해 1차 숏리스트를 선정했다.

향후 사추위는 충분한 검증을 통한 최적의 후보자 선정을 위해 1차 숏리스트 8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심사를 진행해, 2월 중순에는 후보자를 3~4명 내외로 압축한 2차 숏리스트를 확정하고 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2차 숏리스트를 대상으로 사추위는

집중적인 대면 심층인터뷰를 통해 2월 중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이후 이사회의 주주총회 안건 상정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3월 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체의 총의를 반영해 차기 사장 선임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금번 사추위는 현직 사장을 제외한 전원 사외이사로만 구성됐다. 백복인 사장은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사추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명철 사장후보추천위원장은 "지구위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반영해 사추위에 추천한 만큼, 앞으로 사추위는 전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한다는 원칙하에 KT&G의 사장 후보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한샘, 32년 만에 회사 간판 'BI' 바꿨다

디지털·현대적 모습 반영  
통합 커뮤니케이션 강화도

한샘이 32년만에 회사의 간판인 BI (Brand Identity)를 바꿨다.

31일 한샘에 따르면 1992년 이후 처음으로 BI를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하고 보다 현대적인 모습으로 교체했다.

이번 개편은 디자인 스튜디오 CFC와 협업해 한샘이 지난 54년간 쌓아온 전문성과 전통성은 이어가되 현 시대에 맞는 유연한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한샘의 오랜 역사와 철학을 계승한다는 취지로 기존 BI의 핵심 요소는 전반적으로 유지하고 최근 고객과 시장 환경을 반영해 수정했다.

한샘은 92년부터 최근까지 영문 사명인 'HANSSEM'을 9개의 '크리에이티브 블록(Creative Block)'과 빨강,

노랑, 파랑의 삼원색으로 표현한 BI를 사용했다. 가로와 세로·대각선으로 길게 뻗어있는 '크리에이티브 블록'은 한샘의 역동적인 확장성을 상징하고, 모든 색의 시작을 의미하는 세가지 색깔은 다양성을 표현했다.

이번 BI 개편에 따라 한샘리하우스(Rehaus), 한샘홈퍼니싱(furnishing), 한샘서비스(Service) 등 서브브랜드(Sub Brand) 및 계열사 BI도 변경한다. 이를 통해 통합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규 BI는 지난 24일 문을 연 한샘스타필드 수원점의 매장 간판과 실내 인테리어를 시작으로 '한샘몰' 어플리케이션, 고객센터 쇼핀백·계약서, 제품 포장, 영업사원 명함 등 온·오프라인 채널 전 방위에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BMW글로벌에 270억 규모 블랙박스 수주

링크웨어 EU시장 공략 박차

링크웨어가 BMW글로벌에 블랙박스 약 270억원 규모를 추가로 공급한다.

31일 링크웨어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비포마켓에 진출한 이후 현재 BMW글로벌을 통해 약 80여개 국가에 블랙박스(DashCam)를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미주 및 유럽, 일본 등 애프터마켓에도 현지 법제화에 발맞춰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링크웨어 관계자는 "올해 7월부터 EU 내 신규 등록되는 모든 M1(최대 8인

승 승용차) 및 N1(3.5t 이하 화물차) 클래스 차량에 사고기록장치(EDR) 및 지능형 속도 보조 장치, 비상 차선 이탈 경고 등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블랙박스 해외 매출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링크웨어는 지난해 독일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이후 이를 물류 기지로 활용해 EU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BMW 이외에도 글로벌 완성차량 비포마켓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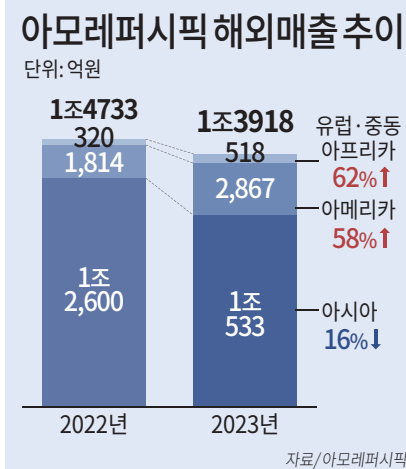
## 아모레퍼시픽, 중국 부진에 영업이익 44% ↓

국내외 매출 감소로 매출·영업익 ↓  
매출 4,213조, 영업익 1520억 기록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주력 계열사인 아모레퍼시픽의 국내외 매출 감소로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31일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의 2023년 매출은 4조 213억원, 영업이익은 1520억원이다. 이는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5%, 영업이익은 44.1% 감소한 규모다. 아모레퍼시픽 국내 사업의 경우 면세 매출 감소에 따라 지난 2022년 대비 14.4% 줄어 2조 210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다만 채널 별로 보면 순수 국내 이커머스 및 멀티브랜드숍에서는 성장세가 나타났다. 아모레퍼시픽의 설명이다. 아모레퍼시픽의 주요 브랜드인 '에스트라'는 올리브영에서 2023년 더



마 화장품 시장점유율 1위 브랜드로 등극하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사업 매출은 1조 3918억원으로 지난 2022년 대비 5.5% 하락했다. 특히 채널 효율화, 재고 축소 활동 등의 영향으로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하락한 여파가 컸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중국 매출

감소가 영향을 미쳐 실적이 하락했다"며 "해외 사업 중 아시아 매출에서 중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초반"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는 영업이익이 증가했으나 중국 사업 적자로 아시아 전체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현지화 기준으로 약 30%의 매출 증가를 이뤘다. 라네즈와 이니스프리가 성장한 데 이어 헤라와 에스트라 등 신규 브랜드가 일본 시장에 진출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주 지역에서도 지난 2022년 대비 58%의 매출 증가로 성장세에 있다. 멀티브랜드숍 채널 점점을 확대한 설화수가 미주 지역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시청





문제는 창의력이야!



Hervé Tullet

# 에르베 툴레展

## 색색깔깔 뮤지엄

2023.11.03 ~ 2024.03.03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주최·주관  
ARTCENTER IDA

창의예술

후원  
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주한 프랑스 대사관

LÜK 루크박스

협력  
ARTCENTER IDA

my art

씨씨씨씨

홍보 마케팅  
(주)사아컴퍼니



# 맘스터치, 가맹점주 단체활동 이유로 계약해지 등 ‘갑질’

협의회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불이익  
부정적 공지문·형사고소 등 압박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3억 부과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가맹 본부가 가맹점주 단체를 조직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가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맘스터치가 가맹본부 맘스터치엔컴퍼니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맘스터치는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 사업자로 2022년 기준 가맹점수는 1392개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 등 61개 가맹점사업자가 지난 2021년 3월 2일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 구성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로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같은 해 8월 3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점주협의회가 보낸 해당 우편물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키고 본사 이익만 추구한다’거나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등 가맹본부 사업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맘스터치는 이에 해당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고 서면으로 경고했다.

점주협의회는 이후 맘스터치에 내용 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회에 응하지 않았다. 맘스터치는 협의회 대표성이 인정돼 가맹본부의 협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협의회 전체 가입자 명단을 제차 요구했고, 점주협의회 명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맘스터치는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점주협의회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리면서 만약 계약이 해지된 후에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공정위 신고, 언론 제보, 점주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이미 준비된 시나리

오에 따라 강경히 대응하면 가맹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임을 경고했다.

맘스터치는 또 자사 온라인 시스템에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은 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상도역점의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의 매출을 내고 있는 매장이므로 불구하고 본부를 끊임없이 비난하며 갈등을 조장’ 등 점주협의회와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기재한 공지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맘스터치는 특히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으나, 이에 대해 경찰, 검찰, 법원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점주협의회 대표에 대해 부당하게 거래거절한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농진청, 인삼 시중공급 소요시간 단축

조직배양·적응률 높이는 기술 개발

우수한 인삼 품종을 시중에 공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31일 인삼 종자 생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인삼은 한 세대가 3~4년인 데다 식물체 1개에서 얻을 수 있는 씨앗이 불과 40개 정도에 불과해 수를 늘려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실제로 재래종 인삼 외에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는 품종 ‘금선’의 경우, 개발부터 보급까지 15년이 걸렸다.

농진청은 “인삼은 종자번식 작물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얻을 때까지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고, 4년 1회 씨앗 수확을 기준으로 40여 개의 씨앗만이 생산된다”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1년에 10개의 씨앗을 얻는 셈이므로, 증식 배율이 10배”라고 밝혔다. 이를 벼와 비교하면 벼는 종자 1개에서 100알의 씨앗을 얻을 수 있어 증식 배율이 100배이다. 따라서 인삼은 벼에 비해 증식 배율이 1/10로 종자 생산에 오랜 시간이 걸려 보급 속도가 느리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기술은 종자를 대량으로 늘리는 조직배양 기술과 조직 배양체의 적응률(순화율)을 높이는



/농촌진흥청

기술이다. 기존의 조직배양 방법을 보완, 생존율을 높임으로써 신품종 종자 보급에 필요한 종자 생산 속도를 4배가량 높일 수 있다.

연구진은 종자 안의 떡잎을 유도 배지에 올린 후 체세포 씨눈(배)이 많이 생기게끔 한 뒤 이를 다시 성숙 배지에 옮겨 씨눈 발달을 도왔다. 그리고 씨눈이 정상적으로 트도록 발아 배지로 옮겨 수개월 만에 0.5g 내외의 조직배양 모종을 생산했다. 유도, 성숙, 발아 등 배양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과정별 최적 배지의 조건과 배양액을 확립한 것이 이번 기술의 핵심이다. 그 결과, 식물체 1개에서 1년 만에 40개의 조직배양 모종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 조직배양 모종은 흙에 옮겨 심었을 때도 생존율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 장애인고용공 사업설명회

보고서 제출 횟수 연 2회 → 1회

표준사업장 직접생산품 수의계약

올해부터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또, 장애인 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계 등 유관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4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장애인과 사업주를 위한 공단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가 중점 소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주의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횟수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을 기존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까지 확대해 공공 부문 장애인 고용 장려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신설돼 표준사업장의 판로가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장애인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사업 예산과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다만,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액에

대해 한도액 초과분에 대해 일정 부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 이후 온라인으로만 진행돼 온 지 5년 만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 개최됐고, 장애계 실무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정보 공개 발간 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를 소개하고 장애계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올 한 해에도 공단 사업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화살나무 추출물, 관절·연골 건강에 효험

자원관, 변상균 연세대 교수 연구진과 치료제보다 3.2배 우수 효능 확인

콘드로이친, 보스웰리아 등과 같이 관절·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 국내 자생식물인 화살나무에서 발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31일 유용 생물자원의 기능유전체 정보 발굴 사업을 통해, 화살나무 추출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원관은 변상균 연세대 교수 연구진과 함께 화살나무 날개(귀천우, 날개

모양의 코르크) 추출물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 얻은 세포에 처리한 결과, 염증을 개선하는 효능이 관절염 치료제인 메토티렉세이트보다 3.2배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메토티렉세이트는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항류마티스제로, 염증 반응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관절염 치료제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동물한테 이 추출물을 먹일 경우 대조군 대비 관절 부종이 40%, 관절 손상은 51%, 염증 유발인자(IL-6, IL-8)는 75%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8월 특



화살나무.

/국립생물자원관

허 출원을 마친 연구진은 올해 2월 식물성 의약품 분야 국제학술지(Phyto medicine)에 관련 연구 내용을 투고할 예정이다.

자원관은 “이번 연구가 화살나무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천연물 신약 개발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 농지은행 포털에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

### 농식품부-농어촌공

‘농지임대수탁사업’ 먼저 적용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거래플랫폼인 농지은행포털에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지은행 전자계약 시스템’은 고객들이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농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대면 농지거래 시스템으로, 계약 건수가 많은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먼저 적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고객들은 농지거래 계약

체결을 위해 최소 1회 이상 공사를 방문해야 하고, 계약 신청을 위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지자체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전자계약 시스템 도입은 공사를 방문해야만 했던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을 통한 계약으로 기존에 발생하던 행정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챗봇서비스를 제공해 고객들이 궁금한 내용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묻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godhe@

## 환경부, 환경오염물질 배출 특별 단속

설 연휴 기간 4300여곳 대상 실시

환경부가 설 연휴 기간 전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에 나선다.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취약 지역 중심으로 2월 1~1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지자체가 참여한다. 특히 고농도 악성폐수와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화학

물질 취급 사업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연휴 전인 2월 8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2만 70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에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주요 환경기초시설 390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특히,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 밥상물가 천정부지 닫힌 지갑... ‘가성비’ 먹거리엔 무장해제

스미후루코리아 편의점과 손잡고  
가성비·반값 등 바나나제품 선택

노브랜드버거 ‘허비스살치킨런’  
미디엄 9900원, 라지 1만8900원  
CU 1000원짜리 삼각김밥 출시

계속된 고물가로 인해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가성비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12월 대비 3.2% 상승했으며, 외식물가지수는 4.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식부문에서 치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5.4% 올랐으며, 신선과실의 경우 25.7%가 상승해 밥상 물가에 대한 소비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좋은 품질과 맛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고, 할인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등 얹어진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청과 기업 스미후루코리아는 세븐일레븐, CU, 이마트24를 통해 ‘갯성비바나나’, ‘반값바



CU가 선보인 초저가 간편식 ‘놀라운 간편식’ 시리즈 /BGF리테일

나나’, ‘2+3 이래도 안바나나?’ 등 가성비 바나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바나나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바나나 대부분이 2개입인 것과 달리, 스미후루코리아의 편의점 바나나는 비슷한 가격대에 5개 구성으로 판매되고 있다. 맛과 영양 성분은 기존 바나나와 동일하지만, 외관 형태가 고르지 못한 바나나를 선별해 소비자에게 부담 없는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스미후루코리아는 작년 11월,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허비스살치킨런 /신세계푸드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에 따라 한 차례 바나나 공급 가격을 인하했으며, 올해 1월 재시행된 할당관세로 인해 다시 한 번 가격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CU를 통해 공급하는 ‘반값바나나’의 경우, 2월 1일부터 한정 기간 동안 기존 판매가 23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15% 가격 할인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마트24의 ‘2+3 이래도 안바나나?’, 세븐일레븐의 ‘갯성비바나나’도 2월 중순부터 가격 할인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브랜드 치킨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푸드의 노브랜드 버거는 합리적인 가격의 ‘허비스살치킨런’을

선보이며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100% 순살 닭다리살에 허브 시즈닝을 더한 튀김 옷을 입힌 것이 특징이며, 신세계푸드가 독자 개발한 스위트 라소스도 함께 제공한다.

특히 허비스살치킨런 미디엄 사이즈는 9900원에 맞볼 수 있으며, 2~3인이 즐길 수 있는 라지 사이즈는 1만89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여기에 허비스살치킨런에 감자튀김, 탄산음료 등을 포함해 1만2900원에 맞춰 구성된 ‘치킨 싱글팩’과 허비스살치킨런, 크런치윙, 크리스피 너겟 등을 1만4400원으로 구성된 ‘치킨 페스티벌팩’도 선보인다.

편의점에는 1000원짜리 삼각김밥이 재등장했다. CU가 단돈 1000원 삼각김밥 등 업계 내 초저가 차별화 간편식 라인인 ‘놀라운 간편식’ 상품을 이달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 것.

‘놀라운 간편식’은 편의점에서 가성비 높은 한 끼를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를 겨냥해 출시된 CU의 초저가 간편식 브랜드다. 신제품 중 하나인 ‘매콤어묵 삼각김밥’은 CU가 5년 만에 내놓는 1000원 삼각김밥이다. 이밖에도 초저가 닭밥(3900원)과 샐러드(2900원)를 추가로 출시한다. /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SSG닷컴

### 日 3회 왕복권 20만원대 내일 쓱라이브 단독판매

SSG닷컴은 2월 2일 오후 8시부터 자체 라이브커머스 ‘쓱라이브’를 통해 ‘에어서울 국제선 민트패스’ 4종을 단독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일본 3회 왕복권’을 20만원대에, ‘일본 횡수 무제한 왕복권’ 및 ‘동남아 3회 왕복권’을 30만원대에, ‘동남아 횡수 무제한 왕복권’을 40만원대에 2000개 한정 수량으로 선보인다. 라이브방송 시작 후 선착순 600명에게는 1만원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민트패스’는 에어서울이 만든 주중 정기 항공편으로 항공편을 구매 횡수별로 무료 탑승할 수 있는 티켓이다. 국제선 탑승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로, 월~목요일에 출발하는 주중 항공편만 해당되며 어린이날, 현충일 등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날짜에 사용할 수 있다. 민트패스 이용 고객은 탑승 시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만 별도 지불하면 된다. /최빛나 기자

## CJ프레시웨이, ‘3조 소스’ 시장 B2B유통 확대 박차

소스 유통매출 전년대비 31% 성장  
외식 사업장 31%, 단체급식 42% ↑  
신제품 출시 등 PB라인업 강화 주력

최근 로제, 마라 등 이색 소스의 인기에 힘입어 다양한 소스 상품이 각광받고 있다. 복잡한 레시피를 없이도 손쉽게 완성도 높은 맛을 낼 수 있어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외식 및 급식 사업장의 수요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CJ프레시웨이는 B2B 고객 맞춤형 상품을 지속 확대하고 약 3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소스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CJ프레시웨이의 소스 유통 매출은 전년 대비 31% 성장했다. 관련 매출은 외식 사업장과 단체 급식 경로



옥사부반점 짬뽕소스. /CJ프레시웨이

에서 각각 31%, 42%씩 늘었다. 연간 판매량은 2만6000t으로 하루 평균 71t씩 팔렸다. 메뉴형 완제 소스, 프랜차이즈 전용 소스, 중식 소스(마라 소스, 굴 소스)의 판매 성과가 돋보였다.

메뉴형 완제 소스는 단체급식 경로

에서의 수요가 도드라졌다. 떡볶이 소스, 마라탕 소스 등 메뉴별 상품으로 출시되어 여러 재료를 배합하는 수고를 덜고 간편하게 메뉴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료비 절감과 인력 효율화를 돕고 배식량에 관계없이 음식의 맛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어 급식장의 ‘만능 아이템’으로 통한다.

일부 상품은 급식 메뉴의 인기를 견인하기도 했다. CJ프레시웨이가 급식장에 유통하는 대용량 밀키트(약 30인분) 중 스테디셀러로 손꼽히는 ▲로제 치즈 속 옹북이 ▲비질 크림 추북이 ▲마라 크림 파스타 키트는 급식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은 소스 구성품이 재주머니를 높이는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외식 경로에서는 프랜차이즈 전용 소스 성장세가 돋보였다. 전년 대비 매출이 48% 늘었다. 치킨용 양념 소스, 피자용 토마토 소스, 햄버거 소스 등 외식 인기 메뉴에 부합하는 상품이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프랜차이즈 전용 소스는 각 외식 브랜드에서 운영하는 메뉴 고유의 맛을 내는 용도로 개발되어 업체별 전용 상품으로 공급된다는 특징이 있다.

국내의 유명 식품 브랜드와 협력해 독점 상품 유통 규모도 확대했다. 지난해 독점 소스 상품의 유통 규모는 전년대비 105% 성장했다. 2022년 B2B 독점 유통 판매권을 확보한 ‘하이드라오’의 마라 소스 상품군이 대표 사례다. /최빛나 기자

## 이마트24, 9개 반찬 ‘갯진명절도시락’ 선택

잡채·전3종·고사리볶음 등 구성

편의점 이마트24가 설날을 맞아 ‘갯진명절도시락’을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갯진명절도시락(7900원)은 명절 음식인 잡채, 돼지고기구이, 전 3종(해물완자, 오색모듬전, 감치전), 도라지볶음, 고사리볶음, 시금치무침, 볶음김치 등 9가지 반찬으로 푸짐하게 구성됐다.

특히 이번 명절도시락은 집에서 바로 만들어 먹는 것과 같은 맛을 구현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밥과 반찬의 맛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마트24는 차별화된 밥맛을 제공하

기 위해 ‘갯진명절도시락’에 신품종 ‘미호쌀’을 사용했다. 미호쌀은 간편식, 편의점 도시락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신품종 쌀로, 냉장·냉동 보관 후 전자레인지에 데워도 적당한 수분감과 찰기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명절에 갯 만든 잡채의 맛을 선사하기 위해 소포장 참기름을 동봉했다. 잡채에 참기름을 바로 섞어 참기름의 고소한 향을 느끼며 먹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

더불어 명절에 먹는 갈비 식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돼지고기를 두껍게 썰어 갈비양념으로 조리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홈플러스, 데친문어 30% 등 ‘역대급 할인’

일주일간 ‘설날 물가안정 프로젝트’

홈플러스가 설맞이 알뜰 쇼핑을 위해 역대급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설날 물가안정 프로젝트’를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데친 문어(100g)는 30% 할인한 4130원에 판매하며, 차례용 큰닭(1.5kg)은 4000원 할인한 7990원, ‘믿고 먹는 농협 상주 햇 곶감(12입)’은 2000원 할인한 1만1990원에 판다. 냉동 간편 전류(10여종)는 멤버 특가로 10% 할인해 7190원부터 준비했다. 고사리/



모델들이 31일 서울 등촌동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강서점에서 ‘설날 물가안정 프로젝트’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홈플러스

도라지/취나물 삼색 나물(450g)은 모든 고객에게 9990원에 제공한다.

/최빛나 기자

## 쿠팡

### ‘설날 선물 기획전’

쿠팡이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가격대의 인기 선물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2024 설날 선물 기획전을 2월 11일까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정육, 과일, 수산물, 건어물, 가공육, 반찬류, 떡, 명절음식 등 고객들이 주로 선물하는 다양한 상품군을 모두 담았다. 기획전에서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는 제스프리, 횡성한우, 농협안심한우, 우미학, 목우촌 등이 있다.

쿠팡은 고객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쇼핑할 수 있도록 기획전을 구성했다. ▲3만원 미만의 실속형 선물 ▲3만~5만원 대의 가성비 선물 ▲5만원 이상의 품격있는 선물 등 가격대별로 상품을 한데 모아 확인할 수 있게 구분해 쇼핑의 편의를 더했다. /최빛나 기자

## 이마트

### 소불고기 등 식품 3종 초저가 식품으로 선정

이마트는 고객이 가장 필요한 상품을 상시 최저가 수준으로 제공하겠다는 ‘가격과격 선언’을 2월에도 이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명절 소비를 감안해 초저가 식품 3종으로 소불고기·양파·냉동만두를 선정했다. 1월 가격과격 선언 ‘인기 먹거리’였던 삼겹살은 가격을 더 내려 ‘특급 게스트’로 더했다. 가공식품/일상용품 40개 중 12개는 동일 상품군의 새로운 인기 아이টে이션으로 바꿨다. 소불고기는 고객들이 소불고기를 살 때 대파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은 점을 착안해 대파를 곁들인 ‘임자도 대파 소불고기’로 기획했다. 800g 한팩 가격은 9980원으로 정상가보다 41% 저렴하다. /최빛나 기자



# 만원이면 화장품 한가득… 다이소, ‘뷰티 성지’ 부상

입점 화장품 250여종 달해  
균일가 적용… 가성비 장점  
“향후 존재감 더 커질 것”

다이소가 새로운 ‘뷰티 성지’로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의 제품군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뷰티 전문몰로 자리를 잡은 CJ올리브영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화장품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2022년 4월 네이처리퍼블릭과 협업해 ‘식물원’을 출시했다. 이후 제품을 지속적으로 확장한 결과, 지난 2023년 10월 기준 다이소에 입점한 화장품 품목은 총 250여종에 이른다.

아울러 다이소의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을 포함한 전체 화장품의 지난 2023년 1~10월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약 180% 증가했다.



서울시내 한 다이소 매장에서 시민들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브이티코스메틱의 앰플 ‘리들샷’은 초도 물량이 2주 만에 완판되기도 했다. 브이티코스메틱을 통해 공급량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품절템’이라는 것이 다이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다이소 공식 온라인몰인 다이소몰에서도 구매 가능 수량은 ‘리들샷 100’ 2개, ‘리들샷 300’ 2개로 한정됐다.

무엇보다 가격 면에서 장점이 있다. 2ml가 6개 들어있는 구성으로 제품 가

격은 3000원이다. 다이소는 다른 상품군과 마찬가지로 화장품에도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등의 균일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CJ올리브영은 ‘VT 리들샷 100 에센스’를 50ml 기준 3만2000원에, ‘VT 리들샷 300 에센스’는 50ml 기준 4만3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다만다이소에서 판매하는 브이티코스메틱의 ‘리들샷’은 다이소 전용 상품이다. 다른 채널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주요 성분은 같지만 배합 비율을 달리

해 가격을 낮췄다.

이밖에 다이소가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에는 애경산업의 ‘스니키’, 더샘의 ‘드롭비’, 클리오의 ‘트윙클팝’, 동국제약의 ‘마테카21’ 등이 있다.

화장품 분야에서 다이소의 약진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다이소는 저렴한 가격과 균일가 정책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향후 뷰티 시장에서 다이소는 존재감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이소 측은 “다이소의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이 다양화되면서 주 고객층이 10대 학생으로 한정되었던 것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2030 고객들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뷰티 업계에서는 다이소가 접근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23년 기준 다이소는 전국 1450여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대표 뷰티 멀티브랜드숍인 CJ올리브영은 2022년 말 기준 130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현대이지웰

###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토털 복지솔루션기업 현대이지웰은 농림축산부·해양수산부와 손잡고 ‘농할쿠폰(농식품부 할인지원)’과 ‘대한민국 수산대전 상품권’ 행사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농할쿠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소상공인 지원과 물가안정을 위해 진행하는 농축산물 할인 사업으로, 고객이 현대이지웰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상품 전문몰인 ‘온누리전통시장몰’에 접속하면 농할쿠폰을 발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상품권은 해양수산부가 설 민생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할인 행사다. 토스·제로페이온·신한솔·우리WON뱅킹 등에서 매월 최대 20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 유통·바이오업계 신제품

### 롯데칠성음료

#### ‘크러시’ 라인업 확대

롯데칠성음료가 맥주 ‘크러시(KRUSH)’의 캔 제품을 출시하며 라인업을 확대한다.

롯데칠성음료가 지난해 11월 젊은 세대를 위해 선보인 ‘크러시’는 분리추출한 유리피판 흡과 흡 버스팅 기법을 통해 극대화된 시원함과 청량함이 특징인 맥주로 특히 20대 초중반의 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2월 중에 새롭게 선보이는 ‘크러시’ 캔 제품은 355ml, 470ml, 500ml의 세 가지이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 채널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 나트륨 낮추고 맛품질 살리고… CJ, ‘웰니스’ 포트폴리오 확대

장류·탕국 연이어 출시  
소비자, 리뷰작성 등 호응

CJ제일제당이 나트륨 함량을 줄인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웰니스(Wellness)’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해찬들 나트륨을 줄인 가정식 집된장’, ‘비비고 저나트륨 사골곰탕’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찬들 나트륨을 줄인 가정식 집된장’은 지난해 11월 출시한 ‘우리잡쌀 태양초 고추장’에 이은 ‘웰니스 장류’로, 나트륨 함량을 약 25% 낮추면서도 구수한 가정식 된장의 맛을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이다.

CJ제일제당은 나트륨을 낮추면서도 기존 된장과 동일한 맛 품질을 구현하기 위해 안데스 소금과 고유의 ‘NFT



CJ제일제당의 ‘해찬들 나트륨을 줄인 가정식 집된장’과 ‘비비고 저나트륨 사골곰탕’ 신제품

/CJ제일제당

발효 공법’을 적용했다. 이 기술은 된장의 원재료인 대두, 양파, 마늘을 동시에 발효시켜 비교적 낮은 염도에서도 구수하고 자연스러운 장맛을 낸다.

앞서 같은 공법으로 선보인 ‘해찬들 나트륨을 줄인 우리잡쌀 태양초 고추

장’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제품은 나트륨 함량을 약 25% 낮추면서 ‘100% 태양초 고추장’의 깔끔한 매운 맛을 살렸다.

나트륨을 낮추고 깊은 사골 맛을 그대로 유지한 ‘비비고 저나트륨 사

골곰탕’도 새롭게 출시했다. 이 제품은 한 봉지(500g)당 나트륨 함량이 500mg으로 기존 ‘비비고 사골곰탕’보다 50%가량 낮다. 또한 사골 농축액 함량을 1.95%로 비비고 사골곰탕 대비 15% 늘리고, 한우사골 엑기스를 추가해 깊고 진한 사골 육수의 감칠맛을 살렸다.

사골곰탕은 떡만둣국, 복엿국, 황태국 등 다양한 요리의 밑국물로도 활용도가 높다. 이 때문에 ‘비비고 저나트륨 사골곰탕’은 국물요리를 저염으로 즐기거나 하는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제품은 지난 주 진행한 기획전을 통해 B마트에 단독 출시했으며, 출시 7일만에 300개가 넘는 리뷰를 생성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한미사이언스, 전기식 시장 본격 진출

신제품 5종 출시… 온라인 중심 판매  
이중제형 멀티비타민 등 신제품 추가

한미사이언스가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5종을 출시하고 온라인 마켓을 중심으로 판매에 나섰다 31일 밝혔다.

특히 한미사이언스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 공식 온라인몰 ‘한미컨슈머헬스’를 선보여 건기식 신제품 5종을 비롯해 프리미엄 듀유 제품 ‘완전듀유’, 어린이 영양주스 ‘마시는 텐텐 플러스’, ‘한미 면역 홍삼정 진’, ‘한미 백년근 천종산삼 배양근’ 등을 판매한다.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5종.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월 정제와 액상을 한번에 섭취할 수 있는 이중제형 형태의 멀티비타민 등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 채널도 올리브영, 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등으로 확장해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대웅팻, 日 반려동물 시장공략 가속

‘코스메윅 도교’서 8종 제품 선보여  
반려동물 헬스케어 전문기업 대웅팻이 일본 반려동물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대웅제약은 대웅팻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일본에서 열린 ‘코스메윅 도교 2024’에 처음 참가해 반려동물 제품 8종을 선보였다고 31일 밝혔다.

대웅팻은 ▲임팩타민펫 강아지·고양이 ▲애니웰 식물성 rTG 오메가3 ▲애니웰 프로바이오틱스 이분 ▲애니웰 루테인아스타잔틴 ▲동물병원 전용 처방 효소 보조제 ‘에피클’ 등 반려동물 영양제 5종부터 애니웰 큰곰스틱 고구

마·연어 등 고단백 영양 간식 2종까지 다양한 제품을 소개했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대웅팻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오프라인 수입 및 유통 대리상을 발굴하는 등 일본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242곳 이상의 유통 대리상과 교류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했다.

대웅팻은 제품에 대한 일본 시장 반응을 점검해 이를 기반으로 현지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웅팻은 앞서 지난 2023년 10월 대웅제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일본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인 ‘큐텐재팬’에서 주요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다.

/이청하 기자



‘조인트 뮤코다당단백(콘드로이친) 1200’

/GC녹십자

## GC녹십자

### 연골·관절 전기식 선보여

GC녹십자가 연골 건강을 위한 효과적 제품을 선보인다.

GC녹십자는 ‘조인트 뮤코다당단백(콘드로이친) 1200(사진)’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출시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뮤코다당단백(콘드로이친) 1200mg을 함유했다. 뮤코다당단백은 관절 및 연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식약처로부터 관절, 연골 건강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으로 섭취를 통해 콘드로이친 황산 보충이 가능하다.

/이청하 기자



스테판 커리가 출시한 프리미엄 버번 위스키

# Gentleman's cut

'젠틀맨스 컷'  
1월, 한국 첫 런칭

첫번째 배치  
3,300병  
한정판

NARA CELLAR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수출입은행, 전국 17개 사회복지시설 1.8억 기부

수출입은행이 설 명절을 맞아 전국 17개 사회복지시설에 총 1억8000만원을 기부하고,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윤희성 은행장(오른쪽 첫번째)이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 동서식품, 남태령 전원마을서 연탄 배달 봉사활동

동서식품은 지난 30일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인근 남태령 전원마을에서 연탄 배달 봉사활동 '따뜻한 겨울 만들기'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추운 날씨 속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동서식품 임직원은 남태령 전원마을을 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들을 찾아 직접 연탄을 배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동서식품



###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로봇수술 1000례 달성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외과는 지난 1월30일 로봇수술 1000례를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외과는 30일 기준, 전체 로봇수술 가운데 최첨단 4세대 로봇수술기인 다빈치 Xi로 737례, 단일공 로봇수술기인 다빈치 SP(싱글 포트)로 266례 등 1003례를 시행했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 제주항공 승무원, 백혈병 환우 위한 애착인형 전달

제주항공 객실승무원이 영유아를 위한 '애착인형'을 만들어 지난달 30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부산지회에 전달했다. 애착인형은 아이가 항상 품고 있는 인형으로, 갓난아이 시기에 불안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제주항공 객실승무원들이 애착인형을 선보이고 있다. /제주항공



### 경희사이버대-두원공과대, 상호협력 협약 체결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지난 23일 두원공과대학교와 '상호협력력을 위한 교류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진희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왼쪽)과 이상훈 두원공과대학 산학협력단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희사이버대

## 기업들 '必환경' 힘 보탠다... 서울시 자원순환 동행

### CJ대한통운, 한솔제지 등 협약 2년간 1063만개 종이팩 수거 기대

CJ대한통운, 한솔제지 등이 서울 시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나선다.

31일 이들 기업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에스아이지코리아, 대흥리사이클링과 '서울 어린이집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 동행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은 서울시에 있는 어린이집 4400여곳에서 배출하는 종이팩을 분리수거 후 CJ대한통운이 오네(O-NE) 물류망을 통해 수거해 부산에 위치한 재활용 전문 기업 대흥리사이클링으로 배송하고, 광학선별 과정을 거쳐 원료로 분리한 종이팩을 한솔제지가 재생용지로 재탄생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홍보와 행정 지원은 서울시가, 교육 및 비용 지원은 글로벌 종이팩 제조사 에스아이지코리아가 각각 맡는다.



(왼쪽부터)박혜란 대흥리사이클링 대표,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숙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조명현 에스아이지코리아 사장, 한철규 한솔제지 대표가 지난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어린이집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 동행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솔제지

이 사업을 통해 2년간 총 1063만개의 종이팩을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20년생 소나무 약 6400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 재생스캐치북은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집과 CJ나눔재단이 후원하는 서울 내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할 예정이다.

CJ대한통운 강신호 대표는 "어린이들이 일상 속에서 재활용을 실천하며 친환경의 중요성을 체화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또다른 의미"라며 "대한민국 대표 물류기업으로서 사회공동체와의 상생을 위해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솔제지는 지난해 70억원을 투자해 종이팩 재활용 설비를 확충, 종이팩 원료 투입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걸친 테스트를 통해 안정적인 제품 생산 준비를 마치고도 했다.

한솔제지 한철규 대표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재활용을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로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에 함께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으로써의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oul.co.kr

## 네이버, 최성준 뉴스혁신포럼 위원장 선출

(前 방송통신위원장)

뉴스 혁신포럼 발족식 개최  
서비스 투명성·공정성 제고

네이버가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으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을 선출했다..

네이버는 3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뉴스 혁신포럼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뉴스 서비스 투명성, 공정성 제고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성준 위원장은 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한 판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 방송통신위원회 장관을 지낸 바 있다. 201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역임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7년부터는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뉴스혁신포럼'은 네이버의 뉴스서비스 개선 방안을 검토하



31일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첫 회의에서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위근 위원, 이종수 위원, 김용대 위원, 최성준 위원장, 김준기 위원, 이문한 위원. /네이버

고 1분기 내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뉴스혁신포럼 위원들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네이버뉴스알고리즘검토위원회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 ▲네이버뉴스 댓글 정책 등을 향후 포럼에서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추후 다양한 뉴스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며 이를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뉴스혁신포럼은 외부 인사들로만 구성된 독립적인 기구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네이버 뉴스 전반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로 개선 방향을 도출해낼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풍부한 경험과 시각으로 뉴스혁신포럼이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아모레퍼시픽

#### '희망가게' 창업주 모집

아모레퍼시픽이 한부모 여성 지원에 나선다.

아모레퍼시픽이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한부모 여성 창업대환 지원사업 '희망가게'의 창업주를 오는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희망가게'는 창업을 통해 한부모 여성과 자녀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대상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는 한부모 여성으로 구체적인 창업 계획을 가진 중위소득 70% 이하 여성 가구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신청서는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청하 기자

### 인사

◆두산그룹 ◇상무 △두산 박재순 △두산퓨얼셀 윤재동

### 부름

▲김일웅씨 별세, 김경래(생명보험협회 홍보실장)씨 부친상 = 1월 30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 발인 2일. 02-6986-4440

▲박경자씨 별세, 이화정(청주시의회 의원)씨 모친상 = 1월 31일 오전 3시, 청주성모병원장례식장 3호, 발인 2일. 043-210-5444

▲신영숙씨 별세, 송형선씨 부인상, 송규호(신한투자증권 부장)·송나리씨 모친상 = 1월 30일 오후 7시17분, 부산광역시 해병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일. 051-506-1022

▲조돌순씨 별세, 강명구(롯데건설 수석)씨 모친상, 신유영(롯데지주 수석)씨 모친상 = 1월 31일, 건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2일. 02-2030-7900

## 박상규 중앙대 총장, 대교협 회장 취임

정성택·변창훈 총장 등 부회장

박상규 중앙대 총장(사진)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22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오는 3월부터 1년이다.

대교협은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4 대학교육협의회 정기 총회'에서 박상규 총장을 제22대 대교협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회장과 함께 대교협을 이끌 부회장으로는 정성택 전남대 총장과 변창훈 대구한위대 총장, 박호상 국립금오공대 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난 박 총장은 서울 용문고를 졸업한 뒤 중앙대 응용통계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뉴욕주립대학교버펄로 대학 대학원 통계학 박사과정을 마친 뒤 미국 하버드대에서 연구교수 생활을 거쳤다. 이후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입학처장, 기획처장, 미래기획단장, 기획관리본부장, 행정부총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 2020년 중앙대 제16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이현진 기자 ihj@

### 두나무

#### “‘두니버스’ 신청하세요”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오는 20일까지 청소년 디지털 금융교육 프로그램인 '두니버스'에 참여할 중학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3년차를 맞은 두니버스는 충청·세종 지역까지 교육학교 대상 범위를 확대, 약 8000명의 청소년에게 디지털 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두니버스'는 두나무(Dunamu)와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청소년 디지털금융 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기획됐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대체불가능토큰 등 8차원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다. /신하은 기자 godhe@



# 제주도 부동산 이야기



이수준의  
부동산 수첩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특구이자 떠오르는 교육의 도시. 천혜의 자연과 국내 유일한 아열대 기후를 누릴 수 있는 곳. 바로 제주도이다.

제주도가 도시민에게 투자의 옵션으로 자리 잡은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제주도의 부동산 개발은 국지적이었다. 골프장, 호텔 등 대형 개발업자들의 무대가 뜨거웠던 반면, 일반 지역은 저평가를 받아왔다.

2000년대 중반 제주도가 드라마,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하면서 내국인은 물론 일본,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그 무렵 국내에서만 약 6개의 신생 항공사가 차례로 제주도에 취항했다.

하늘길이 넓어지니 눈여겨보지 않았던 제주의 시골집들, 외곽 산비탈의 농지들까지 몸값이 올랐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끊겼을 때에도 제주도 관광은 내국인들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때맞춰 온 부동산

광풍에 제주도에도 개발 붐이 일었다. 제주도 부동산에는 육지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제주도에서는 전세나 월세보다는 연세(年貰)가 일반화되어 있다. 몇 년 전 지자체는 이를 개선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도입했다. 그러나 육지에서 온 단기간의 임차인들이 많고 오랫동안 이어진 연세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또, 제주도의 부동산 거래는 매도자 매수자 간의 직거래가 많다. 섬의 특성상 대부분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들끼리 계약을 했기 때문인데, 최근 중개업소가 늘어나도 직거래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개발비용이 비싸다. 내륙에 생산지를 두거나 내륙으로 입항하는 수입품들을 제주도에서 쓸 때는 보통 10~20% 가량의 추가비용이 든다.

비싼 가격에 건축을 시작하더라도 서울 등 대도시에 있는 건축주나 수분양자는 건설공정을 자주 확인하기 어렵다. 주인의 손이 덜 타면, 제야무리 최고의 기술자라도 미흡한 면이 생긴다.

내륙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생소한 점은 바로 무덤이다. 제주뿐 아

니라 내륙도 풍광 좋은 곳에는 어김없이 무덤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민법상의 분묘기지권-타인 소유의 토지에 묘를 쓰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 일정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 등 우리나라는 무덤에 대해서는 유난히 관대한 유교 국가이다.

지질학적으로 섬 전체가 거대한 돌덩이와도 같은 제주에서는 봉분을 울릴 흙이 귀하다. 그래서 넓적한 돌을 얹게 덮어서 무덤을 표시한다. 육지 사람들이 언뜻 바서는 구분해내기 어렵다. 또 무덤을 감출 만한 산줄기가 부족하다. 유일한 한라산을 중심으로 완만한 경사가 퍼져있고, 무덤들은 차례를 지낼만한 공간도 없이 길가에 바짝 붙어 있다. 토지개발의 필수 요건인 도로에 접한 땅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최근 호황기에 비싸게 분양된 제주도의 고급 주택들이 입주도 하기 전에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다주택자들은 대개 세컨드 하우스를 먼저 처분한다. 지금의 시장은 거품이 빠지는 단계다. 금리는 올랐고, 집값은 내렸다. 잔금대출을 전환할 때의 부담이 분양 당시의 느낌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로이에 아시아 컨설팅 대표

## 기후동행카드 아닌 ‘선거용’ 대중교통 할인카드



김현정  
(정책사회부)

말 많고 탈 많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지난 27일 첫발을 뒀다. 서울시는 카드 판매가 시작된 1월 23일부터 31일까지 토요일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빠짐없이 기후동행카드 관련 보도자료를 내려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덕인지 6일 만에 26만장 넘게 팔렸다.

홍행몰이와는 별개로, 안타깝게도 기후동행카드에서는 ‘기후’도, ‘동행’도 찾아보기 힘들다. 우선 ‘기후’자를 떼야 할 것 같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정책이라면서 기존의 교통카드와 호환되지 않게 만들어 수십만장의 플라스틱 카드를 낭비하게 했기 때문이다.

‘동행’이란 말도 공감되지 않는다. 스

마트폰 이용을 어려워하는 중장년층이 기후동행카드를 쉽게 사용할 수 있겠다. 서울시 홈페이지 내 기후동행카드 소개글에는 현재까지 400개에 가까운 질문이 달렸다. 모바일카드를 등록하려다 막힌 사람들은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해 올리며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며 답답해했다. 젊은 사람들도 버벅이는데 그들의 부모 세대라고 상황이 나왔을까. 언제부터가 공공의 복지가 온갖 정보에 빠삭한 스마트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변해가고 있다.

복지 정책의 핵심은 쉽고 간단한 거다. 선거철에 대중교통 할인 카드를 4개나 쏟아내며 “열심히 공부해 알아서 쓰세요”하고는 나 몰라라 하는 게 약자를 위한 정책인가. 진짜 복지는 낮은 문턱과, 높은 접근성을 추구해야 한다. 고로 이런 할인카드들보다는 버스과 지하철 요금을 내려주는 게 천만 배는 더 낫다.

일각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 민영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격정많은 사람들이 오버하는 걸까. 시민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알뜰교통카드가 예산이 없어 환급해주지 않는 선례를 보고 학습한 것이다. ‘공공에서 하는 것도 돈이 부족하면 별수 없구나’라는 것들.

2022년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17조6808억원에 달한다.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손실 규모는 연간 18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시는 이 중 50%만을 보전하겠다고 한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후 시가 올해 한 차례 더 지하철 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황인긴 하나,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날 대중교통 적자를 대체 어떻게 메우겠다는 건지 궁금할 따름이다. ‘기후동행카드’ 대신 ‘선거용 대중교통 할인카드’란 이름은 어떠신지.

/hjk1@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1일 (음 12월 22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동업자와 일하는 재미가 있어 하루가 즐겁다. 48년생 어두움에 빛이 되는 존재가 된다. 60년생 귀인이 와서 도와주니 일이 수월해진다. 72년생 차분하게 하루를 계획하니 결과가 보람이 있다. 84년생 아프지 않게 술을 조금만.



37년생 투자한 만큼의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 49년생 곤란한 처지에 빠지니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라. 61년생 상대방과 균등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군소리가 없다. 73년생 변화에 능동적인 모습으로. 85년생 아직도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38년생 대중 적당히 하는 일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0년생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과 넘어가라. 62년생 해결되지 않았던 일이 해결되고 반가운 소식이 온다. 74년생 상하 관계를 짚어서 공손히. 86년생 집안의 일을 뒷받침한다.



39년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아군인지 살펴라. 51년생 아랫사람으로 인한 근심·걱정이 있다. 63년생 원잔살이 있어 힘든 일이 생긴다. 75년생 적은 돈은 생기지만 좋은 인연을 놓치니 방심하지 마라. 87년생 돈 자랑하기보다는 베풀라.



40년생 잘못된 판단으로 일의 진행이 더디게 된다. 52년생 굶어진 ক্ষ대도 삼발에 있으면 굶아진다. 64년생 절처봉생으로 되살아나게 된다. 76년생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면 구설수로 고생한다. 88년생 닭띠 도움이 계약에 손조롭다.



41년생 남의 가슴에 못 박은 일은 하지 마라. 53년생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좋은 일이 있어 대접 받는다. 65년생 동업자의 배신이 있어 후회하게 된다. 77년생 헛바닥에 귀신이 붙어 말로 상처를 받는다. 89년생 보중에 물리면 속수무책.



42년생 총살이 작용하여 가슴이 아프고 편하지 않다. 54년생 상처살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말을 듣게 된다. 66년생 금전 문제 때문에 구설에 휘말리게 된다. 78년생 애쓰던 일이 해결된다. 90년생 세파에 상처를 입어도 그 또한 인생이다.



43년생 돈 때문에 부부 사이에 섬섬한 일이 있다. 55년생 몸이 아프거나 다리가 상할 수가 있으니 계단을 잘 살펴라. 67년생 사소한 다툼이 크게 되니 조심하라. 79년생 인연이 멀어진다. 91년생 오후 지내던 사람과 다투는 일이 있다.



44년생 육신이 피로할 때는 폭 쉬는 것이 좋다. 56년생 좋은 환경에서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68년생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일생을 좌우하게 된다. 80년생 이직은 서두르지 말자. 92년생 좋은 벼를 사귀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



45년생 동료와 즐거운 날을 보낸다. 57년생 실질적인 협조자를 만나게 되니 도움이 크다. 69년생 일에 방해자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 꼼꼼히 챙겨라. 81년생 오후에 실적이 오른다. 93년생 노력이 따르니 주변 도움으로 일이 쉽게 이뤄진다.



46년생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게 된다. 58년생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 공돈을 기대하지 마라. 70년생 화장자가 습기가 너무 찬 곳에 있어 뿌리가 썩는다. 82년생 소지품 분 실수가 있다. 94년생 하늘이 열리니 조상님 덕을 보게 된다.



47년생 옆에 사람을 도와주면 보답이 언제나 온다. 59년생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스트레스를 풀게 된다. 71년생 교통사고나 화재를 조심하도록. 83년생 친구와 의기투합하여 커다란 영업성과를 낸다. 95년생 이사는 즐겁고 힘을 얻는다.



## 김상회의四季 투자의 한 치 앞

재테크 수단으로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두고 있는 파생상품 투자자가 있다. 파생상품은 주로 주식이나 채권에 연계된 투자를 한다. 연계된 주식과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이다. 최근에 전문학적 금액의 손실이 발생한 파생상품이 화제가 되었다. 파생상품을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대거 돈을 집어넣었고 막대한 투자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나이 많은 투자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노후 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셈이다.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투자자들은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수익을 관리해 주리라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러나 시장이 생각 이상으로 폭락했고 큰 손실을 당하게 되었다.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금융투자상품은 갈수록 많아지고 취향에 맞는 투자처를 택하기도 쉬워졌다.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수익 가능성만 보는 사람들이 많다. 최대 얼마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된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게 투자 결과인데 장밋빛 미래만 보려고 한다. 투자할 때는 거꾸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얼마나 손실 가능성이 있을지를 먼저 보는 것이다. 최대 수익이 아니라 최대 손실이 얼마나 생길 수 있는지를 계산해 봐야 한다.

감당하기 어려우면 투자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설마 하는 마음에서 항상 위험이 쏘든다.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 실제로 생기는 게 인생이다. 모를 게 세상일이요. 흔히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고 한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내 투자금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건 쉽지만 수익도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니다. 투자할 땐 수익보다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보자. 그래야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   |   |   |   |   |   |   |   |   |
|---|---|---|---|---|---|---|---|---|
| 4 |   | 8 | 9 | 1 |   | 6 |   |   |
| 9 |   | 7 |   |   | 6 | 2 | 5 |   |
|   |   |   | 5 |   |   |   |   | 9 |
|   |   | 9 | 6 |   | 7 | 8 |   |   |
| 5 |   |   |   |   | 3 |   |   |   |
|   | 8 | 6 | 3 |   |   | 9 |   | 7 |
|   |   |   |   |   |   |   |   |   |
|   | 1 |   | 2 |   | 9 | 5 |   | 6 |

###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 할인도서

|   |   |   |   |   |   |   |   |   |
|---|---|---|---|---|---|---|---|---|
| 9 | 8 | 9 | 6 | 2 | 7 | 1 | 8 |   |
| 2 | 7 | 8 | 9 | 1 | 9 | 6 | 2 |   |
| 2 | 1 | 6 | 9 | 7 | 8 | 9 | 8 | 2 |
| 7 | 2 | 1 | 6 | 8 | 2 | 9 | 9 |   |
| 9 | 8 | 8 | 2 | 9 | 6 | 7 | 1 |   |
| 6 | 2 | 9 | 7 | 1 | 9 | 8 | 2 | 8 |
| 1 | 9 | 2 | 9 | 8 | 7 | 1 | 8 | 6 |
| 8 | 6 | 7 | 2 | 8 | 7 | 1 | 9 | 9 |
| 8 | 9 | 2 | 1 | 9 | 6 | 8 | 2 | 7 |

|   |   |   |   |   |   |   |   |   |
|---|---|---|---|---|---|---|---|---|
| 6 | 8 | 7 | 2 | 1 | 9 | 2 | 9 | 8 |
| 9 | 2 | 1 | 8 | 2 | 9 | 8 | 6 | 7 |
| 9 | 2 | 8 | 8 | 6 | 7 | 1 | 2 | 9 |
| 1 | 9 | 8 | 6 | 2 | 1 | 9 | 8 | 2 |
| 1 | 8 | 2 | 9 | 9 | 8 | 6 | 7 | 2 |
| 2 | 6 | 9 | 7 | 8 | 2 | 9 | 8 | 1 |
| 8 | 1 | 2 | 1 | 6 | 8 | 9 | 9 |   |
| 2 | 7 | 6 | 9 | 9 | 8 | 2 | 1 | 8 |
| 8 | 9 | 9 | 1 | 8 | 2 | 7 | 2 | 6 |



# 전남도, 240억 투입... 동남아·중동 e-모빌리티 시장 선점

핵심부품 국산화에 90억 지원  
수요연계형 부품 개발에 150억  
필리핀 등서 ‘모빌리티 데이’ 준비

전라남도에서 생산한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 오토바이 등 이(e)-모빌리티가 친환경 중심으로 급속하게 전환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와 아랍에미리트(UAE)를 누빌 준비를 하고 있다.

전남도는 빠르게 성장 중인 동남아시아와 중동의 이-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 국비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이-모빌리티 수출 활성화 공동생산기반 구축(90억 원), 동남아 시장에 맞춘 우측 핸들(RHD) 차량과 교환형 배터리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초소형 전기차 수요연계형 부품 기술개발(150억 원) 등이다.

해외바이어 상담과 해외박람회 참



영광 대마산단 전경.

/전남도

가 지원 등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한 ‘전남 모빌리티 데이’도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 개최를 준비하는 등 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첫 ‘전남 모빌리티 데이’는 에이치비, 대풍, 세보 등 전남 우수 기업이 참여한다. 필리핀 대기업 LCS 그룹, 일로코스 주 등을 방문

해 수출상담회와 연계협력 강화 등 글로벌 이-모빌리티 중심지로의 도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기업들도 해외시장 진출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해 12월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와 대풍, 에이치비가 필리핀 앵커 기업과 필리핀 진출을 위한 조립공장 설립·생산·판매를 위한 이-모빌리티 서비스 체계 구축 협약을

했다. 세보모빌리티도 아랍에미리트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는 기업들의 노력에 발맞춰 완제품 수출에 따른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남에서 주요 부품을 생산하고 도내 기업이 설립한 동남아 조립공장에서 완제품을 조립·생산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특히 전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총사업비 175억 원을 투자해 올해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영광 대마산업단지에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장·성형·용접 등 생산장비를 갖춘 이-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센터를 구축한다.

올해 규제·실증·인증·허가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이-모빌리티 글로벌 혁신특구를 유치해 도내 기업의 해외 맞춤형 인증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라이브 테스트베드와 글로벌 인증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포항시는 1월 30일 지역 내 종합병원과 함께 지역의료 활성화 및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했다.

## 포항시-종합병원 지역의료 활성화 업무협약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추진 중인 포항시가 지난 30일 지역 종합병원과 함께 특화단지 유치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이강덕 포항시장과 함인석 포항의료원장, 한동선 포항세명기독병원장, 최순호 포항성모병원장, 권흥대 에스포항병원장, 구자현 좋은선린병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포항시가 힘을 쏟고 있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와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에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이상호 기자 leesh0412@

# 경남도, 설 연휴 4일간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마창대교 등서 총 62만대 예상  
이용자 혜택통행료 23억 추정

경남도는 설 연휴 기간인 2월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도내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운전자들은 요금소 진입 시 평소대로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차량은 일반 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남도는 설 연휴 기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



마창대교.

료 면제 시행 내용을 도청 및 민간사업자 누리집, 민자도로 내 도로 전광판 표출, 현수막 게시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설 연휴 4일간 마창대교 21만 대, 거가대로 18만 대, 창원~부산 간(불모산터널) 도로 23만 대 등 총 62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 이용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무료 통행료는 약 23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이를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창원시 소관 민자도로인 팔룡터널과 지개~남산 간 도로의 예상 통행량 11만여 대에 대한 무료 통행료 약 1억2000만 원은 창원시가 별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작년 1월부터 시행한 거가

대교 휴일 통행료 20% 할인과 7월부터 시행한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20% 할인에 이어 올해 2월 1일부터는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거제시민을 대상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 통행료 20% 할인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설 연휴를 맞아 도내 모든 민자도로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되어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경남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고향을 방문하는 모든 분의 안전운전을 기원드리며,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함평군 도시숲·가로숲길 정비 추진

전남 함평군이 함평군민의 산림복지증진을 위해 2024년 생활환경숲 등 도시숲, 가로숲길 조성 및 등산로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사업비 32억여 원을 투입해 대동 향교숲 인근에 생활밀착형 숲 조성 등 4개소와 기산에서 곤봉산에 이르는 테마숲길 및 가로숲길 28km를 조성하고, 현화양근린공원을 25년부터 지방 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 용역을 추진한다.

/함평(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영주시, 휴일 어린이집 등 아동정책 확대

경북 영주시는 올해부터 아동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시책은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운영 ▲부모급여 지원금액 인상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아이돌봄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인상 등이다.

우선 주말이나 공휴일에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6300만 원)을 투입해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그동안 평일에는 긴급한 사정 등으로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해왔으나, 휴일에는 이용할 곳이 없었다.

시는 휴일어린이집 운영 제공기관 모집 공고에 신청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월 말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1개소를 최종 선발해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365일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영주(경북)=김동국 기자 kdg7677@

## 사천시 “문화관광·역사탐방 하세요”

오늘부터 ‘사천사랑 시티투어’ 운행

경남 사천시는 ‘사천사랑 시티투어’를 2월1일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천사랑 시티투어’는 사천시 방문객 및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4개 테마코스(문화관광, 역사탐방, 항공·체험관광, 달빛관광)와 체류형 코스(1박2일)로 운행된다.

올해는 우주항공산업체 투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항공산업 기획전시 및 산업현장(KAI, KAEMS 등)을 연계한 항공·체험관광 코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2층 버스를 투입해 시티투어

참여자들에게 색다른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며,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하여 맛깔나는 해설도 곁들일 예정이다.

‘사천사랑 시티투어’ 버스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사천시외버스터미널과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진주역에서 출발하며 5명 이상 사전예약 시 운행한다.

시 관계자는 “사천의 관광지를 편안하게 즐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해양관광과 항공산업관광을 연계하는 숙박, 먹거리, 교통 인프라 등을 구축해 항공관광 도시 이미지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천(경남)=이도식 기자

## 영덕군 법률·건축 등 무료 민원상담

영덕군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생활문제와 법적 다툼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 건축, 세무, 지적 4개 분야에 대한 무료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영덕군은 지난 2020년 법률과 건축, 지적 분야를 시작으로 관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관을 통해 무료 민원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각종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군민에게 질 높은 법률 조언을 제공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세무 분야를 추가했고, 올해는 재무과의 마을세무사 제도와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국제세무상담, 지방세 불복 청구 관련 상담 등 세무 분야 인력풀을 더욱 보강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덕(경북)=김종철 기자 kimjongseol@

버스타비 **YAP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헝타 청산 명령에 中 부동산 해법은... ‘과감한 조치’ 내놓을까 /사진 뉴시스  
▲AI로 만든 아동 성착취물 확산...美, 관련 대책 논의 중

▲IMF “한국 가계부채 점진적 줄여야... 이자 부담 불거질 수도”  
▲삼엄한 경비에 적막감만... ‘조선인 추도비’ 철거로 폐쇄된 दि공원



▲우크라이나 정보수장 “푸틴, 北 방문해 무기 공급 협상할 것” /사진 뉴시스  
▲이스라엘, ‘유엔 직원 하마스 공격 연루’ 책임 유엔총장 퇴진 요구





무서운 밥상물가  
가성비 먹거리엔  
무장해제  
나



Life

만원에 한가득  
다이소  
'뷰티 성지' 부상  
L2



# 서울 '기후동행카드'에 군포 동참... 경기 남부지역 첫 확대

서울-군포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  
군포지역 7개 역에서 사용 협의  
오세훈 "수도권 확대 적극 추진"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군포  
시가 참여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하은호  
군포시장과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  
청에서 '서울시-군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과 생활 연계가  
높은 경기 남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와 처음으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 확  
대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 시는 강조했다.

군포시의 평균 대중교통 통행량은 일  
일 약 14만9000건이다. 이 중 서울과 군  
포 간 대중교통 통행량은 3만2000여건  
으로, 약 22% 수준이다. 시는 본 협약을  
계기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양 도시는 군포지역 지하철 1·4호선  
7개 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코레일과 협의에 나선다. 해당  
7개 역사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곳으  
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수도권 교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기후동행카드'의 판매가 시작된 23일 서울 중구 시청역에 카드  
판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손진영기자 son@

통기관 실무협의회 논의를 거쳐 발표  
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군포시를 통과하는 '서  
울시 시내버스' 6개 노선(5530, 5531, 5  
623, 540, 541, 542)은 이미 기후동행카  
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돼 있다"면서  
"향후 두 도시를 오가는 시민들은 기후  
동행카드로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이  
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추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광역버스  
를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기후동행카드는 1월 23일 판매 개시  
이후 현재 26만장이 넘게 팔렸다. 시는  
"서비스 시작 직후 서울 지역에서 대중

교통 무제한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호  
응이 매우 높게 나타나면서, 인근 공동  
생활권인 수도권으로 기후동행카드 이  
용 지역을 확대해달라는 목소리가 커  
지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12월 김포  
시에 이어 금번 군포시와의 협약을 성  
사시키며 단계적으로 기후동행카드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동행카드  
가 열렬한 관심을 받으며 출범한 만큼,  
수도권 확대를 적극 추진해 보다 많은  
시민이 '신개념 교통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  
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시, 4개월간 스토킹 피해자 136명 보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  
피해자 이주비, 긴급 거주시설 확대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전담  
조직으로 작년 9월 출범한 '스토킹 피  
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통해 4개월  
여간 136명이 지원과 보호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상담 및 사례관리 556건, 심리·치유  
지원 38건, 법률·소송지원 32건, 의료지  
원 13건, 민간경호 등 안전지원 39건을  
포함 총 678건의 피해 지원에 나섰다.

시는 경찰과 핫라인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를 사업단으로 연계, 추가 스토  
킹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과  
정에서 14건의 추가 피해를 막는 성과

를 거뒀다.

시는 "이별 후 연락을 받지 않는 피  
해자에게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을 통  
해 접근한 가해자와 금융서비스 앱으  
로 1원씩 총 120회에 걸쳐 송금하며 피  
해자를 괴롭힌 가해자를 재신고했다"며  
"또 가해자 출소일에 맞춰 피해자  
에게 민간 경호를 배치해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서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  
2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늘린다. 피해  
자가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시설도  
종전 2개에서 3개로 확대한다.

/김현정 기자

## 고양시, 걷기 편한 '안전 보행로' 만든다

대형 보도블록 도입, 심미성·안전성↑

고양시는 노후화된 보도블록을 정비  
하여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로 조성  
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어울림로 등 관내 16개  
소에 보도정비 공사를 실시했다. 대형  
보도블록을 새롭게 도입하고 심미적인  
효과와 안전성을 높였다. 대형 보도블  
록은 기존 보도블록에 비해 내구성이  
높고 평평해서 유아차, 휠체어, 보행기  
등을 이용하는 보행자·통행에도 편리  
하다.

시는 처음 방문한 사람도 목적지를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보행로 곳곳에

방향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편의성  
이 높아 보도 이용자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공사이력판을 설치하  
여 시공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사의  
완성도를 높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했다.

지난 6월부터는 고양시의 특색을 고  
려해 보행자 중심의 보도정비 지침(가  
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정비 기준은 ▲평탄성과 내구성,  
심미성을 갖춘 대형블록의 재질 및 규  
격 다양화 ▲교통약자의 보행편의 증대  
를 위한 턱 낮춤 확대 ▲주변 환경과 조  
화로운 디자인 패턴 마련 등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1000억 지원' 글로컬대학, 올해 10곳 지정

2개 이상 대학 '연합형태' 신청 가능  
지난해 탈락한 5곳 본지정 평가 대상  
4월 예비지정, 7월 본지정 결과 발표

정부가 지방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글로컬대  
학'에 지난해 예비 지정됐지만 본지정  
에서 탈락한 5곳이 올해 본지정 평가  
대상으로 올라간다. 지난해는 대학이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통합을 전제로  
신청하는 것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2개 이상 대학이 '연합체' 형태로 신청  
할 수 있게 완화됐다. 올해 본지정되는  
10곳은 7월 중 발표된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권역  
별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 글로컬대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  
은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계획'을 31  
일 확정·발표했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된 지방대는 5  
년간 대학당 총 10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규제혁신 우선 적용  
▲지자체·범부처 투자 확대 유도 ▲'지  
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 2024년 글로컬대학 지정 절차



자료/교육부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  
으로 지정되는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2개 이상의 대학이 공동  
의사결정기구를 구축해 대학 간 연합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하  
나의 대학이 단독으로 신청하거나 통  
합을 전제로 신청하는 것만 가능했다.  
또한 앞으로는 대학의 설립·규모 등 대  
학 특성이 평가에 반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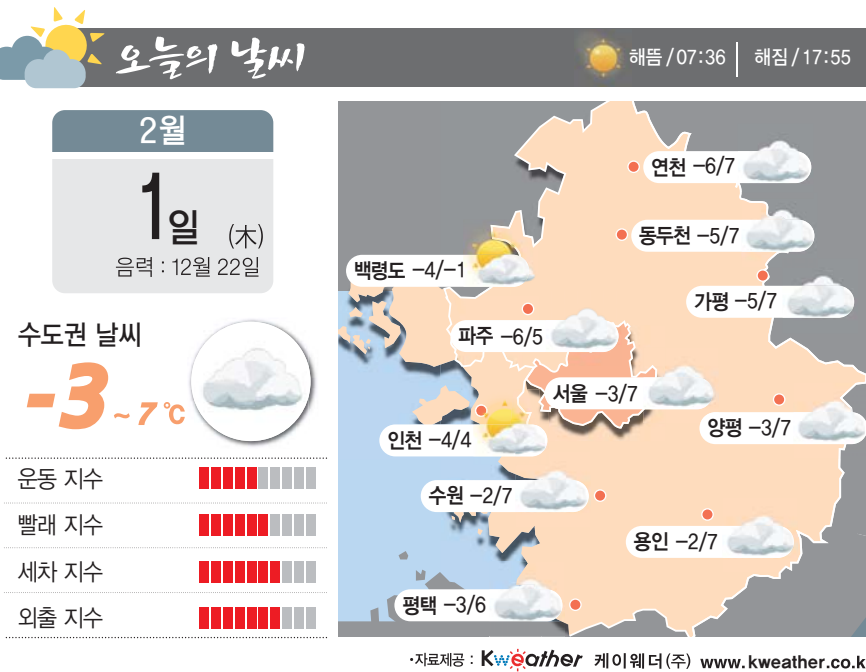
지난해 예비지정 대학 가운데 최종  
본지정에서 탈락한 5곳은 혁신방향을  
유지·보완한 경우 올해 본지정 평가 대  
상이 된다. 이에 따라 ▲순천향대 ▲연  
세대 미래캠퍼스 ▲인제대 ▲전남대  
▲한동대는 올해에만 예비지정대학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예비지정평가 때보다 심층적 평가를  
위해 국·공·사립, 전문대학·종합대학  
등 대학 설립 유형에 따른 평가위원(패  
널)을 구성해 모든 신청 대학을 대면심  
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에서 제시한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성과관리의 기본방향은 유  
지하되, 그간 제시된 각종 의견을 반영  
해 이같이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글로컬대학 지정 신청은 3월 22  
일까지다. 교육부는 4월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뒤 7월 중 본지정 평가 결  
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승부차기 도중 떠난 만치니 사우디 감  
독 "미안하다... 끝난 줄 알았다"  
▲돌연 스리백 꺼낸 클린스만, 호주전도  
깜짝 전술 나올까 /사진 뉴시스

▲8강 상대 호주보다 이틀 덜 쉬는 클린  
스만호, 체력 회복 관건  
▲KT 박영현·손동현·문상철, 역대 연  
봉 합류...강백호는 동결



▲"FA 최치만, 3~4개 팀과 협상 중...다  
음달 윤곽"  
▲한국남자테니스, 데이비스컵 16강 진  
출 티켓 놓고 캐나다와 격돌 /사진 뉴시스



SAMSUNG

# Galaxy S24 Ultra

Galaxy AI ✨ is here



samsung.com

\*일부 AI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